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4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개금동지점 거래고객
부산맘아동병원 김지숙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거래고객
(주)퀸아트 황태옥 대표



- 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 14 이달의 편지
'여성시대가 바꾼 나의 삶'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부산맘아동병원 김지숙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퀸아트 황태옥 대표
- 81 코너 속 편지
'내 사랑 다 줄 거야'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떠날 결심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여행은 어려운 주제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4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신유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특 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천사를 만났다

윤숙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시 봄이다. 응달쪽의 눈은 그대로인데 성급한 개구리는 종족 번식의 준비가 한창이다. 물이 고인 웅덩이에 방울방울 알을 낳고 몸을 푼다. 이제 곧 투명한 자루에 싸인 알들은 곧 몸집을 불리며 올챙이로 자란다. 시골에 와서 신선한 공기에 취하고 서정적인 풍경에 정을 주고 대문 없는 집들을 신기해 하면서 어느새 세 번째 봄을 만났다.

작년 3월 초 마른 수풀 속에서 빠끔히 내다보는 가녀린 새싹을 발견했다. 벌써 새 생명이 스멀스멀 올라오는가 싶어 궁금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3월의 오솔길은 마른풀이 살얼음을 덮고 있어서 자칫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그날 새벽에도 하천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유난히 웅덩이 쪽에서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소란스러웠다. 아직 올챙이가 깨지 않았는데 벌써 개구리 소리인가 싶어 이끌리듯이 다가서 고개를 빼고 밑을 내려다보는 그 찰나였다. 발밑의 흙 땅이 힘없이 내려앉으면서 그대로 꼬라박았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에 잠시 정신이 없었다. 겨우 둘러보는 주변은 크고 작은 자갈이 깔린 얇은 물 위였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119에 도움을 청해 응급실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큰 사고였다. 빗장뼈가 끊어지고 허리 뼈에도 금이 갔다고 했다. 온몸으로 퍼지는 통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황당했다.

수술 후 입원실로 옮겨진 뒤부터는 불편함과 싸움이 시작되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라 보호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병실로 가야 했다. 5인실에 두 분의 간병인이 하루씩 교대로 환자를 돌본다고 했다.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보니 건강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식사가 나왔다. 환자를 위해 준비된 간병인이 손발 노릇을 한다. 구미가 당기지 않은 밥상을 받으면서 예전에 입이 소태 같았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간병인은 고개를 젓는 내 의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콩나물국에 밥을 한 숟갈 맡았다. 나름 환자를 다루는 요령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국물을 입술에 적시니 바짝 말라붙은 입이 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다. 간병인은 빈속에 약은 독이니 얼른 회복하려면 무조건 뭐든 먹어야 한다고 야기 달래듯 했다.

나는 나보다 조금 연상인 간병인의 호칭을 ‘언니’로 정하고 그렇게 불렀다. 그 언니는 마치 나를 위해 예비가 된 듯 세수와 머리를 감기고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이고 약을 챙겨 먹이는 등 정말 가족처럼 돌봤다. 그런데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돌보듯 병실의 다섯 환자를 두루두루 살폈다.

병실은 편한 공간은 아니다. 수시로 들락거리며 살피는 간호사들과 각자의 앓는 소리로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낮밤의 구분이 없는 병실의 생활도 조금 지나니 적응되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잠이 왔다.

간병인은 환자들의 수발 중에도 막간을 잘 활용했다. 쪽잠을 자고 식사도 후딱 끝내는 등 주어진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이든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해결했다. 환자들의 투정과 짜증도 눈높이에 맞춰 대처하니 적성에 맞지 않으면 해내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면 돈 보따리를 안겨준다 해도 절대 못 할 것 같다. 이기적인 환자도 어르고 달래며 수발하는 특별한 사랑과 한계를 뛰어넘는 책임감이 놀라웠다. 마치 엄마가 아가의 부스럭 소리에 민감하듯이 모든 촉각을 열고 살폈다.

어쩌다 내가 미안해서 사소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다 들키면 혼냈다. 자신은 환자에게 필요한 간병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가끔 간병인의 인성에 대해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도 있지만 다 사람 나름인 모양이다.

간병 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속사정 이야기도 할 만큼 친해졌다. 칠십 중반인 그 언니는 12년째 간병 일을 하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처음 현장에 임하여 일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도 온다고 한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육신의 고달픔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물론 고용인은 맞지만 보살핌에 대한 대우를 함부로 할 때는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시기만 넘기면 사람마다 다른 성격이 파악되어 잘 대처하게 되더

라고 경험을 말했다. 이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요령을 터득하여 헤어질 때는 서운하다고 했다. 연륜이 주는 편안함이랄까? 무엇보다 따뜻한 교류로 3주 동안의 병원 생활이 별 불편함이 없었다.

퇴원하는 날이었다. 그 언니는 “아파서는 다시 오지 마!”하면서 내 등을 쓸어주었다. 하지만 1년 후 쇠골 뼈에 붙은 철심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니 또 만날 기회는 있지만 걱정이 된다. 손꼽아 기다리던 퇴원이었는데 막상 헤어지려니 많이 서운했다. 짧은 이별을 고하고 곧 다른 환자를 살피려 돌아서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병원에서 걸어 다니는 천사를 만났어요.”

사람이 그리워요

김병문 | 경기도 화성시

오랜만에 반가운 딸의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다음 주말? 무슨 일인데?”

저는 한번 튕겨봤어요.

“아빠, 우리 전에 다녔던 노숙인들 식사 대접. 같이 가자고~.”

“어! 그래? 오랜만이네~.”

전화를 받고 보니 13년 전에도 꼭 같은 전화를 받은 생각이

났어요. 노숙인 식사 대접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아빠가 국통 좀 들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었지요. “넌 국통 들어줄 남자친구도 없냐?”라는 핀잔을 주며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노숙인들 식사 대접하는 곳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밤 10시 30분까지 오라는 딸의 문자를 받고 도착한 곳은 대학로 한쪽에 있는 작고 허름한 가정집이었어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이었는데 덜그럭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미 옷을 챙겨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빠예요. 오늘 오시라고 했어요.”

다들 잘 오셨다며 저를 흔쾌히 맞아 주셨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보니 정말 남자 손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국통뿐 아니라 밥술이며 반찬통 나누어드릴 그릇들. 꽤 무거운 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더 오더니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공지와 함께 나갈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뭐부터 옮길까요?” 묻고는 하나하나 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모든 짐을 싣고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문 닫힌 지하철역을 마주했네요.

저는 뭘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도와야 할지 몰랐지만 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테이블을 깔고 그릇, 수저, 밥, 반찬, 국통 순서대로 놓으니 어디서 오는지 노숙인들이 줄을 짝 서셨습니다.

‘아, 맨날 왜 늦게 다니느냐고 일찍 일찍 좀 다니라고 잔소리 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기특하기도 하고 눈물도 핑 돌았어요.

노숙인분들은 종일 굶었는지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밥을 산 더미처럼 쌓아드려도 다 드시고 또 오는 분도 계셨지요.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조출한 식사를 대접하고 가져간 난로에 손도 좀 녹이시라고 안내하는데 이동해야 한대요. 모두 다시 일사 불란하게 움직여 짐을 챙겨 싣고 차에 올라탔지요. 지금 생각해 해도 그날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추운 날이었어요.

다시 도착한 곳은 을지로4가역이었어요. 이번 역에도 노숙인분들은 이미 줄을 서 계셨고 리더로 보이는 선생님은 “많이 기다리셨지요? 금방 드릴게요~”라며 안면 있는 노숙인과는 인사도 나누고 담요와 박스에 들어가 주무시는 분은 깨워 식사를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스크에서나 접하던 일을 눈앞에서 보니 믿기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나 싶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봉사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어벤저스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한 노숙인이 난로 앞에 서시는 거예요.

“아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뵈 분 아니세요?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딸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따라왔지. 어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말이나 걸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해

도 매섭도록 추운 날에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되는 거리를 부지런히 따라 움직이신 노숙인분의 마음이 애타는 울음으로 다가왔지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뜨끈한 국 한 그릇 더 드세요~”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왔어요. 난 사람이 그리워~”

이야기를 쪽 들어보니 젊은 날 아내가 세상 떠나고 홀로 자식들 키우다가 큰 사기를 당해 오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노숙인의 삶을 택하셨더라고요. 염치가 없어 자식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지낸다며 가끔 오라는 애기와 함께 “애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고는 다시 떠나셨어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숙인분의 “난 사람이 그리워~”라는 말씀이 종종 생각나요. 그 이후로 딸을 따라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다 1년에 한두 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는데 이번에 다시 부르니 반갑네요.

요즘은 노숙인 식사 대접 지원사업도 많이 줄고 코로나19 때는 운영이 중단된 곳도 많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 코로나 시절에 노숙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싶어요. 물론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존재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잘 커 준 딸과 함께 노숙인 식사 대접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봤다>

[5580] 아내랑 연애할 때 화성에서 춘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동안 갔네요.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요.



[5744]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집으로 보내는 옷 택배를 여친 집으로 보냈어요. 꼬깃꼬깃한 편지와 함께요.

[6519] 남편은 연애할 때 2주 잠수 타고 나타나서 겨울 코트를 사주더군요. 알고 보니 2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6174] 아내랑 결혼하기 위해 하루 두 갑 피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거짓말을 해가며 피웠는데 결혼 후 15년 차인 지금까지 금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금연입니다.

[9509] 아내와 연애할 때 남산에 올라 “이리 많은 집 중에 그대와 함께할 집 하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다. 미안하다” 하며 아내의 동정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해 알콩달콩 잘살고 있습니다.



[6057] 저는 강원도 홍천 살고 여자친구는 서울 중랑구 사는데 아프다 해서 밤 12시에 가서 간호해 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홍천으로 출근하곤 했습니다. 8년 연애를 끝내고 내년 3월에 결혼해요.

목요일 남성시대 시간에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14 여성시대가 바꾼 나의 삶
- 16 아들이, 바쁘지?
- 19 앵무새 녹두
- 22 끈이 새로 생겼습니다
- 26 구피와의 하루
- 29 내집이생긴날
- 33 6개월 차 초보 탁구인

- 37 달려라 998 청춘
- 40 거울 속 나를 찾아서
- 44 죽음이 존엄해질 권리
- 48 이웃집 보일러
- 51 정말로 넘어지신 거 맞으세요?
- 55 생활지원사의 기쁨과 슬픔
- 60 시골 초등학교를 선택한 손자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여성시대가 바꾼 나의 삶

강민지 | 서울 영등포구

여성시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듣는 저는 마흔일곱 살, 아직 1년 차밖에 안 된 새싹 당당이지만 여성시대로 인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당당 이 분들의 사연을 듣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일과 관련된 새로운 일을 위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블로그도 개설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전혀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여성시대에 '15년 만에 전하는 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연이 끊긴 친구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글이었죠. 방송을 계기로 그 친구와 연락이 되었고

이번 주말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이네요. 지금까지 사는 게 바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살았는데 소녀가 된 것처럼 많이 설레어요.

세 번째, 수요일의 미라클 '수라클'을 계기로 올해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기로 마음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막상 일어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번째, 사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었나 봐요. 반항이라는 게 시작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친구들과 싸움도 여러 번 해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시다. 그렇다고 딸과 대화를 시도하고 다독여주기엔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당연히 딸과의 사이는 멀어졌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땐 저만 힘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님과 함께' 스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서천석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반성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 같네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눈에 걸렸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제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 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면 딸도 저와의 대화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마음의 문을 100퍼센트 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웃으면서 대화하고 걸어갈 때 제가 팔짱 끼면 뿌리치지도 않고요. 친구들 얘기도 먼저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동안 참 부족한 엄마였구나 느껴요.

이 모든 걸 깨닫게 해준 여성시대와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주신 당당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etter 02

아들아, 바쁘지?

김준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처 방전을 받을 일이 있어 가까운 내과 의원에 들렸다. 환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병원에 갔는데도 여자 노인 세 분이 대기 중이다.

“아무개 어르신,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호출이다. 진료를 마치고 원장실에서 나온 키 작은 할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말이 없으시다. 혈색 없는 얼굴에 간간이 기침을 하신다. 진료를 기다리며 지루함에 휴대폰을 살펴 보던 중, 건너편 좌석에 앉은 그 할머니의 전화 통화하시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왔다. 미안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다.

“아들아, 바쁘지…”

목소리에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죄스러움까지 담겨 있다. 전화가 딱 끊겼다. 자녀도 전화 받기에 편치 않았던 자리였을까. 잠시 뒤 전화



가 연결되는 듯하다.

“엄만데…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급성 폐렴이라네.”

연이어 답변을 하신다.

“아니… 아픈 지는 일주일 됐는데 낫겠지 했지.”

아들인 듯한 남자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 쩍하니 들렸다 멀어진다. 왜 아직 그러고 있었냐는 그런 말투 같았다. 자식임에도 어려운가 보다. 자책하듯 할머니는 아픈 몸을 가누며 미안함을 연신 전하고 있다. 급성 폐렴이 당신의 잘못이나 되는 양 조심스러우시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근데 원장 선생님이 지금 큰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한다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리고는 “엄마가 혼자서 가볼까?” 하시더니 잠시 후 “응, 그래 저녁에 집에 들린다고?” 전화를

끓은 할머니는 이내 말문을 닫고 멍하니 계신다.

“아무개님 들어가세요.”

내 이름이 불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는 거기까지다. 처방을 받고 나오니 할머니는 안 계셨다. 큰 병원으로 가시긴 한 걸까?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다. 훅~ 하며 어머니가 생각났다. 울 어머니도 가끔 저런 전화를 하셨는데 “아들아, 바쁘지... 널 병원 좀 가려는데 데려다 줄 수 있니?” 미안함으로 꽉 채워진 그 목소리였다. “병원까지만 데려다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바쁘니까 그냥 가면 돼. 집에 갈 땐 우리가 택시 불러서 갈게.”

울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내내 미안해하셨다. 내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시술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이 울 양이면 나 또한 그렇게 오지 말라며 괜스레 미안해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톡톡톡~ 카톡으로 사진이 쏟아져 들어온다. 5살 손녀 주혜가 팔씨름을 하는 모습들이 들어왔다. 어린이집 민속놀이 팔씨름 대회 결승전에서 졌다고 속상해서 울고 있다. 보다 못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없던 2등 상을 급조해 아이 목에 걸어주셨단다. 기침을 하던 내가 빙긋이 웃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주혜는 장미란 언니보다 더 힘이 세질 거야~”

핑크빛 공주 옷을 입은 울 어머니의 미소를 꼭 닮은 손녀 주혜가 수화기 너머 까르르 웃고 있다.

보시는지요, 어머니. 당신의 빈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꽃들어요.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바쁘지...”

모두의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 덜 미안해하고 당당하시면 좋겠다. 사진으로 저장된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본다.

“엄마, 병원 갑시다.” 그 한마디면 되던 그런 날로 돌아가고 싶다.

Letter 03

앵무새 녹두

김영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출 근하러 새벽에 일어나니 앵무새 녹두가 작은 햇대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아마도 딸이 내 옆에서 졸고 있는 것을 햇대에 올려놓았나 보다.

3년 전, 시골에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꿈쩍을 못 하게 되셨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내시는 동안 치매 증세까지 있어 늘 걱정을 안고 살았다.

나는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았다. 나는 더 늦기 전에 내 엄마의 노후를 함께하고 싶었다. 장남인 내가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다. 주위에선 모두 다 근심 걱정뿐이었지만 자식인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엄마와 함께했다.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지금의 시간이 '엄마와 함께하는 천국으로의 여행'이라고 내 일기장에

써놓았다. 그 시간 동안 울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력했다.

엄마는 새장을 크게 만들어 20여 마리의 새들을 키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의 울음소리가 ‘천국에 온 여행’처럼 느껴질 만큼 참으로 고왔다. 엄마도 늘 말씀하셨다.

“아~ 새소리가 참 곱기도 하다.”

마루에 나와서 새소리를 들으시며 한참을 취해 계신 듯했다. 엄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방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어머님은 베개를 들고 와 자주 내 옆에서 주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는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 본 기억이 없다는걸.

4대 독자였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아들,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할머니께서 24시간 귀하다는 이유로 나를 늘 독차지 하셨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셨고 엄마는 내 옆에 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할머니가 없으면 울었고 그런 나를 엄마가 달래주었지만 나는 그런 엄마를 싫다고 밀어내기도 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래서였을까. 연로하신 엄마는 베개를 들고 내 옆으로 오셔서 주무시곤 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지금에서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게 그저 참 좋았다. 만약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어머니 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영영 엄마의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았을 텐데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했다.

주말이면 빠짐없이 내려와 엄마와 함께했던 우리 6남매 부부, 식구

들 속에서 엄마는 참 행복해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했던 천국으로의 여행은 엄마의 암 재발로 인해 약 2년여 간의 시간으로 끝이 났다.

엄마가 떠나시고 나는 시골집에 6개월 더 있다가 모두 정리하고 애들 곁으로 돌아왔다.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서 새들은 다 정리하고 말하는 앵무새 ‘녹두’만 데리고 왔다.

인천에 처음 와서 낮설어서인지 녹두는 새장에서 안 자고 내 옆에서만 잠을 잤다. 그러잖아도 낮설어할까 봐 새장과 먹이통 모두 시골집에서 쓰던 그대로 갖고 왔는데도 녹두는 제 집에서 자질 않고 불만 끄면 날아와 내 옆에서 잠을 잤다. 새장으로 여러 번 올려 주어도 다시 내려와 내 옆에서만 잤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쳐 간 생각이 있었다. 엄마!

그 후로 나는 녹두가 내 옆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작은 헛대를 만들어 내 옆에 놓아 주었다.

그리고 1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아직도 나는 울 엄마를 생각하면 목 울대를 치고 올라오는 울음을 꼭꼭 삼키느라 애를 쓴다. 그런 자식을 생각해서 엄마는 앵무새 녹두를 남기고 가신 걸까.

우울증까지 찾아와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을 녹두가 많이 달래주었다. 쉴 새 없이 내 옆에서 말하고 종알대고 진한 그리움과 아픔으로 온갖 감정이 들춰질 때마다 흐르는 내 눈물을 녹두가 닦아준다.

울 엄마가 남겨주고 간 앵무새 녹두와 나는 울 엄마와 함께했던 천국으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삶에서 영혼은 언제나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법. 나는 내 엄마가 남기고 가신 아름다운 영혼과 늘 함께할 것이다.

Letter 04

끈이 새로 생겼습니다

애청자

3년 전만 해도 제가 여수에서 여성시대에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 낳고 공부 시작해서 암 투병 중에도 자격증 공부하고, 어렵게 얻은 정규직도 그렇고, 지하방 생활 10년 만에 장만한 아직 대출금 갚지 못한 내 집도 그렇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군복무 중이었고 한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고, 20대부터의 제 모든 삶은 여수 이곳이 아닌 경기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설날 아버지가 굴과 함께 삼킨 굴 껍데기에 장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100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 후 한 달 만에 엄마마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 삶에 아무 희망도 낙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기분 아세요? 끈 떨어진 기분. 세상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

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기분.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기분. 어느 날은 시간이 널을 뛰고 어느 날은 시간이 옛가락처럼 늘어져 하루가 지겨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요. 제가 그랬습니다.

맥없이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맥없이 먹기만 하고 어느 날은 맥없이 웃기만 했어요. 사람이든 직장이든 마음이든 안정감이 제 삶의 중요한 가치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정규직도 내 집도 다 소용없고 주먹만한 심장 하나 내 맘대로 안되더라고요. 백 근도 안 되는 몸뚱이 하나 세상에 닷 내릴 데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던 상사로 인해 마음이 크게 다치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자식인 제가 이유 없이 당하는 꼴을 보면 엄마가 분하고 원통해서 하늘에서도 눈을 못 감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45년간 일군 많은 것들을 두고 이곳 여수로 내려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태어난 고향땅이고 구수한 사투리에 익숙한 비린내지만 나이 먹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없지만 일이 안 되면 돌아갈 곳도 없으니 절박함만은 짝이었습니다.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이 쌓여 한 달을 보내고 그런 한 달이 모여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발로 뛰어서 일거리를 찾아오고 공부도 새로 시작하고 가족도 챙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 아버지 찾아가고 그사이 반갑잖은 갱년기도 찾아왔어요.

따뜻한 이곳에 눈이 내려 도시 전체가 마비된 날은 한 시간을 걸어 출근하다가 뒤로 넘어져 영치를 다쳤는데 지금도 날이 갓겨나 오래 앉아 있으면 내려앉을 것처럼 아픕니다. 그때 제가 뼈를 다치지 않은 걸 어찌 알았느냐고요? 아픈데 일명 쪽팔림이 더 커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걸 보고 알았지요.

그 사이 ‘최고의 부모’라는 책도 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지역신문 ‘여수넷통뉴스’에 상담 칼럼도 씁니다. 칼럼을 쓸 수 있는 것은 여성시대에 글 좀 써본 경험 덕입니다. 또 군부대 교육부터 문화센터 교육까지 불러만 주면 달려갔습니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인성 교육할 강사를 뽑기에 지원했는데 고맙게도 뽑아주셨어요.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선생님은 모두 12명. 범죄심리사, 예술치료사, 센터장, 퇴임하신 국어 선생님 등 경력과 이력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분들과 5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유난히 눈이 가고 귀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후덕한 모습, 편안한 목소리, 따듯한 눈빛, 계산 없는 다가옴 등이 ‘이분을 만나려고 내가 교육에 오게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붙이진 못했는데 둘째 날 날씨도 칙칙하고 뭔가 산뜻함이 필요해서 녹색 티를 입고 간 저에게 그분이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 녹색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물론 이 바보는 아무 대답도 못 했지 뭐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자신을 개그우먼이라 소개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심수봉 씨의 ‘비나리’와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르셨어요. 속으로 ‘울 엄마도 노래 참 잘 불렀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시선을 다 가져간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노래를 아주 따듯하고 차분하고 감미롭게 부르시는 겁니다. 참여자들 이름을 넣어 개사까지 하면서 ‘참 좋다’를 불러주시는데 그때 통찰이 왔습니다.

‘그래 어쩐지... 다했네. 희은 이모랑’

사람들이 앙코르를 청하자 이번에는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3년의 고생을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이젠 다시 정 주면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68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간 내 엄마가 누려보지 못한 69살, 70살 그리고 80살을 나중에 내 엄마에게 들려줘야겠습니다.

Letter 05

구피와의 하루

오동현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환 한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을 밝히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하루가 시작된다.

정년을 앞두고 자기 계발을 위해 연수 기간을 주었는데 30년 이상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직장생활이 몸에 배어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직장 일에 매달려 어렵게 생활하며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살아온 내 인생. 장이라는 직위로 승진까지 하는 동안 지켜워서 푹 쉬고 싶었는데 취미생활도 하고 자격증과 외국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싶었는데 한동안은 밖으로 나서지지가 않았다.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날은 무언가 목표를 두어야 하기에 아침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곧 한계가 와서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졌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면 아이처럼 잘 빠지고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아

내가 내 서글픔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속상해서 ‘남자는 혼자 속으로 눈물을 삼킨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마트에 갔다가 수족관에서 구피들이 꼬물 꼬물 열심히 수영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도 모르게 첫인사를 했다.

“안녕! 구피야~”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 마리에 500원씩 주고 암수 2마리를 샀다. 주인아주머니는 비닐봉지에 단단히 담아주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집으로 와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어항을 꺼내 쌓인 먼지를 닦고 깨끗이 청소부터 시작했다. 아내가 말했다.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양반이 웬일로? 구피 두 번만 기르다간 부지런해져서 밥도 해 먹고 살림도 할 사람이네~”

그동안 아내를 도와주지 못한 마음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다고 내가 밖으로만 나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쉬는 날은 집에서 꼼짝하기 싫은 것이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

나는 두 마리가 잘 놀도록 물도 갈아주고 아침밥도 주면서 고물거리며 자라는 모습에 푹 빠져 버렸다. 어디 외출하면 구피가 보고 싶고 궁금해졌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조그만 것들이 꿈틀거리어서 불을 켜주고 자세히 보았더니 새끼를 5마리나 낳은 것이다.

“여보, 여보! 이리 좀 와 봐. 구피가 새로운 식구를 만들었어. 새끼를 낳았다고! 얼마나 이쁜지 알아?”

“자식들 어렸을 때는 잘 놀아주지도 않은 양반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왜 저런대? 까짓 구피 가지고~”

그래도 나는 아내 손을 잡고 구피한테로 데려가 “여기 봐. 저 밑에 새끼들이 꿈틀거리잖아~” 했더니 아내도 신기해하며 밥부터 주라고 했다. 그런데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숨었나 아니면 혹시라도 죽었나 살살이 관찰해도 보이질 않아 걱정되어 네 마리 밖에 안 보인다고 흐느끼는 소리로 구피를 부르니 아내가 “젊었을 때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고 소화하던 양반이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리 상심해요? 그리고 구피는 자식을 낳으면 바로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건 기본인데...” 하는 것이었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니 참 난감했다. 작은 뜰채로 어린 구피 4마리를 작은 어항에 분리하고 한 달을 보살피니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애지중지 키운 보람을 느꼈다. 어느 정도 자라면 같이 키워도 된다고 다시 수족관에 합쳐 주었다. 좋아서 그러는지 만나서 반가운지 꼬물꼬물 수영하는 구피들.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구피는 30~40마리로 불어났다. 아침이면 나는 “반가운 친구, 구피야! 난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이자 주인이야~”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의 취미생활이 숙련되자 아내한테 제안했다.

“여보, 우리 다른 열대어 더 기르면 안 될까~”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키우자고 했다. 나는 하찮은 구피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더 사랑하고 노력하며 살자고 아내와 약속하고 빨간 금붕어 두 마리를 마트에 가서 분양해 왔다.

“금붕어야, 너희도 구피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렴.”

내 제2의 인생은 구피를 만난 시점부터 밝고 행복해졌다. 사무실 컴퓨터만 가지고 30년 이상을 살아온 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아내에게 좋은 선물 사주겠노라 다짐해 본다.

Letter 06

내 집이 생긴 날

성장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저는 여성시대 애청자 슈퍼당당이 성장환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이 생겼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주 장난스럽게 “우리 언제 결혼할까?”라고 했는데 2018년 6월 예복 입기에 살짝 더웠던 맑은 날 결혼했습니다. ‘반짝이’라는 예쁘고 건강한 딸이 생겼습니다. 많이 모아놓지 못한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찾아온 행복. 그러나 부담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민과 걱정만 하다가 ‘그런데 이런 걱정을 왜 하는 걸까? 내 애잖아~’라는 생각이 갑자기 휘몰아쳤고 그때부터 ‘나도 아빠야. 내가 정말 잘 키워볼 거야’라는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하던 우리에게서 어린이집과 아이를 등·하원 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처가댁 근처에 아내 회사와 어린이집이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원룸에 살던 우

리에게 전세 계약은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사를 와야 했기에 전세 계약을 했고 허름하고 낡았지만 아내 회사와 딸의 어린 이집 그리고 처가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사 와서 힘들었던 점은 아내 직장까지 1킬로미터가 넘게 애매하게 거리가 멀다는 점이었습니다. 슬펐던 순간은 비가 오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길을 유모차에 딸을 태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발목도 안 좋은 사람이 그러고 왔다는 점도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한테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몸이 힘들기보다는 지나가는 회사 직원들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차를 사줄 형편도 안 되었기에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하며 그 집에서 4년을 버텼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청약을 넣었고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물론 당시 살던 집이 용자도 없고 역세권이긴 했지만 그 점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매달 2~3번씩 “저희 나갈 텐데 돈은 준비되시는 거죠?” 하고 여쭙었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돈이 준비되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말을 흐리며 전화 끊기 바빴죠. 저는 이런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 나가는 전날까지 집주인에게 전화했고 이사 당일 오전 그렇게 걱정하던 전세금이 마침내 입금되었습니다.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아온 돈을 아파트에 넣었고 이런 저런 절차를 밟고 대출받아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첫날은 가전제품과 가구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캠핑 다닐 때 쓰는 매트와 난방 텐트를 치고 첫날밤을 지냈습니다. 그것마저 좋았던 우리 세 식



구는 난방을 틀어도 바로 따뜻해지지는 않는 첫날을 꼭 붙어서 잤습니다.

다음날부터 짐 정리를 하며 아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한 조명 공사와 이런저런 공사를 일주일 정도 했어요. 먼지가 나도 쓸고 닦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내는 2023년 9월쯤 둘째를 임신했고 디딤돌대출이라는 상품에서 이자를 조금 더 감면받고자 퇴사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생긴 식탁에 우리 가족이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쓰던 식탁과 의자는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앉아도 항상 불편했는데 몇 번을 앉아 보고 산 식탁과 의자는 맘에 쏙 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는 소주를 아내는 무알코올 맥주를 우리 딸은 보리차를 예쁜 컵에 담아 들고 다 같이 앞날을 축복하며 “짠~” 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니 서러웠던 일들이 생각나 아내 앞에서 울보가 되어 버렸네요. 아내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항상 “이사 가면 사야지” 하며 미웠고 우리 딸에게는 방 하나 못 만들어줘서 항상 좁은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 놀게 한 게 미안하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정리하고는 “오빠, 어때? 잘 샀지?” 하는데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딸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공주님~ 이제 공주님 방 정리는 공주님이 해야 돼~”라고 하니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아빠, 내가 방 정리했어~ 봐바~ 나 잘했지?”라며 해맑게 웃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조용하다 싶어 보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정리도 하는 딸아이 모습에 기분이 좋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육조! 육조에 장난감 넣고 물놀이하며 노는 것도 참 좋아해요.

남는 방 하나에는 혼술 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잡동사니와 캠핑 짐을 쌓고 보니 한두 사람 겨우 누울 공간이 남네요. 혼술은 접고 거실에서 가족과 같이 마시자 마음먹고 제가 만들고 싶은 공간은 천천히 생각해 보렵니다.

아내에게 말하고 싶어요.

“유미야! 결혼 전에 장모님이 짐을 보셨는데 난 잘살 거고 넌 힘들게 살 거였잖아. 그게 만약 운명이라면 난 너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나랑 결혼한 후 지난 5년 정말 눈물 나게 힘들고 서러웠을 테지만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너의 운명은 이제 내가 바꿔줄게. 더 행복한 내 아내로 살게 해줄게. 너랑 연애한 3년과 결혼한 5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사랑해.”

Letter 07

6개월 차 초보 탁구인

정은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저는 지금껏 안 해 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여러 운동을 해봤어요.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 온 후에는 헬스장에서 스피닝 운동을 5년째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는 몇 년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탁구를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등록했습니다.

탁구채, 탁구화, 탁구공 구입하고 월·수·주 2회 20분씩 코치님께 레슨을 받습니다. 저희 코치님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했고 현재 그 제자들이 실업팀 탁구 감독으로 재직 중일 정도로 평생을 탁구에 몸 바친 분이세요. 이런 유명한 코치님 아래에서 배울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일 열심히 맹연습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말씀으로는 제가 운동신경이 '상' 정도는 된다고 하셔서 제

짧은 소견으로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7개월 레슨을 받으면 웬만큼 잘 치게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똑딱똑딱 하면서 단식, 복식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의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구력이 5년, 10년 이상 된 분들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레슨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탁구란 하루아침에 쉽게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절대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특히 제가 배운 기술들을 연마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은 탁구 구력 55년에 빛나는 '코리아 탁구장'의 조영찬 부관장님이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 30분 이상 초보인 저와 탁구공을 주고받는 '밸리'를 해주신 덕분에 제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 가는 중입니다.

부관장님께서서는 탁구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특히 강조하시는 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 탁구는 겸손해야 한다. 내가 좀 잘 치게 됐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 초보자들과는 안 치려고 하고 자기와 실력이 비슷하거나 고수인 사람들하고만 치려는 사람은 최악이다. 본인이 있는 한 여기 탁구장은 초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진정한 체육인을 만난 것 같아 속으로 '따봉'을 날렸었지요.

부관장님은 탁구 칠 때의 매너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상대방에게 매너 있게 서브 공을 넘기는 방법이나 공이 탁구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아무리 상대방 방향이라 할지라도 공이 굴러가고 있는 쪽으로 함께 반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게 '탁구인의 매너'라고 가르쳐 주시는 멋진 분입니다.

또 부관장님께서서는 제가 탁구에 소질이 있다고 종종 말씀해 주셔서 그때마다 제가 농담으로 “제가 탁구를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신유빈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렸을 텐데 아깝습니다” 하며 함께 웃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 일상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탁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매일 오후 5시쯤 탁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재촉을 한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초보인 저에게도 남다른 특기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파워풀한 스매싱. 제가 힘 있게 탁구공을 날리면 주위 선배님들은 “아이고 이젠 부관장님이 초보자에게 딸리십니다~”라고 농담을 하시고 그럼 부관장님께서서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젠 제가 딸리는 것 같습니다”라며 초보자인 제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얼마 전엔 부관장님과 제가 한 팀이 되어 처음으로 복식 게임도 하게 됐는데 예상외로 저희 팀이 3 대 2로 이겼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팀이 도전해 왔는데 그 팀마저 3 대 2로 이겼더니 한 선배님께서 제 예명을 ‘최강자’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러곤 다음날부터 “최강자 씨, 저와 탁구 한번 칩시다” 이런 기분 좋은 농담으로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탁구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 탁구 치는 게 점점 더 재밌고 실력이 향상되는 게 스스로 느껴지고 그러니 이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서 참 행복해요.

한 달 전부터는 탁구장 주인이신 오 관장님께서 회원들 의견을 반영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친선 탁구 대회를 여는데 하수인 저는 실력이 모자라서 참여하면 팀에 민폐란 생각에 그날도 조용히 귀가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 관장님께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적극 권해 주셔서
마지못하게 됐고 결과는 당연히 제가 있는 팀이 쟁니다.

하지만 시합 내내 긴장감과 초조함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눈가에 가로 주름이 늘었고 진 팀은 이천 원, 이긴 팀은 천 원을 내서
이온 음료수를 사서 나눠 마셨는데 평소에 먹던 음료수 맛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시원하고 청량감이 탁월했습니다.

“저희 편이 저 때문에 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선배님들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오늘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위축된 제게 다들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지요.

마지막으로 부관장님께서 해주신 멋진 말씀도 아직 제 뇌리에 꽂혀
있어요.

“정 여사님, 탁구라는 경기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선배들에게 처음엔 다 그렇게 배워왔기에 오늘날 잘
치게 된 거니 다음 주에도 꼭 대회에 참여해서 게임 속에서 많이 배
워가세요.”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 뒀다가 먼 훗날 제가 고
수가 되었을 때 제 후배들에게도 고대로 이런 말을 해주면서 용기와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코리아 탁구장’
선후배님들 모두 탁구로 건강 지키고 건승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내
일도 모레도 글피도 열탁! 즐탁! 열심히 탁구~ 즐겁게 탁구~ 하입시
대이~.

Letter 08

달려라 9988 청춘

이현숙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작년에 99세를 넘기신 나의 아버지의 별명은 아직도 9988이다.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다는 신조어인데 아버지에게 딱 맞는 별명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붙인 애칭이다.

작년에 백수연을 할 때 백수연은 100살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99세에 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1925년 소띠인 아버지는 소띠라 그런지 오늘도 일과 공부 모임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부지런한 분이시다.

‘서시’를 쓴 윤동주 시인과 같은 시대 사람인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나보다 젊은 애들이 체력은 나보다 못하네~” 하시는데 그 말씀 때문이라도 자녀들이 운동도 더 하고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30년 전 어머니는 그때부터 무릎이 안 좋아 자주 병원에 다니셨는

데 그때 두 분이 사신 곳이 경기도 작은 읍이라 외출할 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콜택시를 부르자니 비용도 비싸고 번거로우셔서 아버지가 칠순의 나이에 면허를 따기로 결심하셨다.

아버지의 이 야심 찬 프로젝트는 “내가 당신을 위해 면허도 따고! 운전도 하고! 병원까지 데려다줄게!”라는 패기와 함께 시작됐는데 첫 시험 필기는 기준선에 턱걸이한 72점. 그 기세에 이어 실기까지 보셨지만 한 번 낙방하고 두 번째에 합격!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다. 동네에서 현수막도 걸자고 할 정도로 다 같이 좋아하셨다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서울대 합격 수준이었다나.

아버지는 결국 집에 있는 자금을 끌어와 차도 사고 처음으로 내 차로 운전하게 되자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좋아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 부푼 꿈과 로망을 잠잠하게 만든 이가 있으니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초보운전인 아버지의 실력이 영 미덥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뭘 믿고 초보운전자 차를 타? 못 타겠네~”라고 태클을 거셨다.

아버지의 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태우고 달리는 것이었기에 아버지는 설득 작전에 돌입하셨다. 이와 함께 아버지는 개인 연수를 신청해 여러 번 받고 또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해 잔소리까지 참아가며 연수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국 초보운전 탈출에 성공하셨다.

이즈음에 어머니는 뒷좌석 손잡이를 꼭 부여잡고 덜덜 떨며 첫 탑승을 했는데 몇 번의 담력 체험 끝에 병원까지 함께 가실 정도로 아버지의 운전 실력은 늘었다.

이후에는 두 분이 대전시로 이사 오게 되어 아버지의 활동 범위는 전보다 더 넓어졌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평생대학원에 등록하셨고 학교에 다니니 아버지를 찾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났다.

사교성이 좋은 아버지께서 “친구들아, 학교 가자~” 하며 아침마다 친구들을 태우러 가기 시작하셨는데 차에서 음악도 신나게 틀고 친구들과 가고 싶은 곳에도 가셨다.

그런 아버지에게 두 번째 태클을 건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

“아이고, 환장하겠네. 혼자 타는 것도 겁나는데 다른 사람을 태워?”
 “개네들도 다리 아프디아~ 아프다는데 태워야지 어떡하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이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의 즐거운 시간은 막을 내렸고 아들들의 성화로 운전면허증이 반납되어 운전도 끝이 났다.

그래도 학교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는 사위뺄 되는 대학교수님, 그분도 70대인데 그분 차를 얻어 타기로 하셨단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10분 거리인 교수님 댁 앞에 가서 교수님과 같이 차를 타고 오늘도 학교로 향하신다. 교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오신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직 난 썩썩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직접 교수님 댁까지 걸어가신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말이다.

등교가 없는 날이면 대중목욕탕에 일주일 두 번 가시고 토요일은 친구들과 고정 모임. 남은 시간에는 텃밭에 채소 키우기. 아버지의 스케줄은 오늘도 빈틈이 없다.

올해도 양파를 200개나 심으셨다는데 손주들과 같이 가서 수확도 하고 9988 우리 아버지와 식사도 하고 와야겠다.

Letter 09

거울 속 나를 찾아서

정선례 | 전남 강진군 칠량면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과 마주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에 삶의 질곡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언제 저토록 깊게 팬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 빼개놓은 나무 속살 무늬결처럼 어지럽다. 기미 잡티는 또 어떤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런 얼굴로 고스란히 비칠 게다. 아찔하다.

딱 짜인 일상에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다. 숙절없이 흘러간 시간이 온전히 잃어버린 세월이라 생각하니 거울 속 여인에게 미안스럽다. 민낯의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공허하여 왠지 모를 울컥함도 차오른다.

마음을 쓰다듬을 양으로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았다. 얼굴의 기미와 잡티가 사라졌으면 하는 맘으로 여러 번 닦았다.

녹음이 번지는 싱그러운 여름날 강진에서 수국이 피어나는 것을 서

른네 번이나 보았다. 삶의 언덕길도 수없이 오르내렸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걷다 돌부리에 차여 넘어지기도 부지기수였다. 그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 새겨졌을 것이다.

내 안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다. 밥 알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검소함과 반대로 명품 가방 앞에 발걸음이 멎는 허영기다. 만족과 불만족,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두 개의 거울이 대립할 때마다 갈등이 솟는다. 그 둘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그런 내가 요즘 부쩍 거울을 자주 보게 된 것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영순이 때문이다.

영순이는 나의 중학교 친구이다. 우린 사춘기 학창 시절 내내 함께였다. 매점, 영화관, 학교 밖 분식점, 만화방, 심지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까지 우린 늘 함께였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교실 뒤 화단 쪽에 조성된 호수에서 여성 그룹 ‘놀란스가 부른 ‘섹시 뮤직’을 틀어 놓고 영순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정신없이 몸을 흔들며 놀았다.

그때 구경하던 누군가가 일렀는지 선생님에게 들킨 우리는 모두 복도에서 의자를 들고 벌을 서야 했다. 그렇게 공부보다는 놀기에 열중하면서도 나와 영순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목포에서 서울로 전학하게 되면서 늘 붙어다니던 우리는 헤어졌지만 영순이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매점에서 그 아이와 자주 사 먹었던 과자 ‘산도’를 마트에서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렸고 어쩌다 라디오에서 놀란스의 ‘섹시 뮤직’을 듣는 날이면 종일 그리움이 절절해서 하늘을 울려다보곤 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학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것이다. 그건 우연이었고 우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다.

“너... 영순이지?”

“누구? 아! 너 선례 맞지?”

우린 그날 서로의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룬 채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도 나를 만나고 싶어 이리저리 수소문했다는 것이다. 찾집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지난날들을 더듬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대화할수록 영순이는 그 옛날 내가 알던 영순이가 아니었다. 일찍 결혼해 손자까지 있는 나와는 달리 그 집 아이들은 아직도 학생이었다. 내가 농촌에서 농사일하느라 까맣게 그을린 채 평일과 휴일을 분간 없이 보낸 것과는 달리 그녀는 공직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 차분한 어조와 미소 띤 얼굴로 내내 말했지만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범접할 수 없는 묘한 압도를 느꼈다.

그녀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단련된 자기관리로 빈틈이 보이지 않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반강제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그녀는 그때는 공무원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고시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한 번에 붙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년을 앞둔 영순이는 남편도 고위공무원이어서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듯했다.

대화를 할수록 반가웠던 순간은 멀어지고 자꾸만 낯선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무거움이 느껴졌다. 농촌에서 전혀 꾸밈일 없이 사는 나와는 달리 그녀는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윤기 나는 머릿결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을 수 있는 군살 없는 몸매가 여느 모델 못지않았다. 약삭같이 살아온 ‘지나한’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그녀에게 나는 더 이

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평소에 기초화장도 하지 않던 내가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웠다. '시술을 받아볼까?'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다. 내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얼굴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마음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데 내면의 아름다움이 돋보여야 할 오십 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나는 자꾸만 흔들린다.

삼십여 년의 결혼 생활은 무언가를 잔뜩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치열했던 사십 대의 시간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오십 대의 날들이 쌓여 육십 대의 내 모습이 될 것이다. 육십 대의 내가 또 오늘의 나처럼 불안과 회의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나를 더 잘 경영해야 할 것인데….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언젠가 읽었던 셰익스피어의 글을 노트에 끄적여 보았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마음 씩씩이나 말씨, 눈빛은 성찰과 변화된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쁘고 아름답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삶 또한 지나온 내 것의 일부였다는 점을 소중히 기억해야겠다. 이순을 바라보는 중년 여인의 눈에 비친 거울 속에서 젊음과는 다른 원숙한 아름다움이 뭔지 찾아 들여다보는 것도 오롯이 나의 몫이다.

Letter 10

죽음이 존엄해질 권리

최봉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치매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없는 불치병인데 다른 병과 달리 환자는 고통을 모르고 가족들의 일상은 돈과 반비례해서 힘듦의 시간은 커져 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치매를 병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치매 부모를 전문 돌봄 시설에 모시기를 꺼린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이상을 느끼면 병원에 가고 입원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치매는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가족들이 돌볼 수 있다고 여긴다. 간혹 요양시설의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꺼리는데 그건 그야말로 극히 일부의 일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지만 끈으로 침상에 묶어놓은 건 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내가 겪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상황에 가슴이 멍멍해지곤 했다.

나의 어머니는 배회성과 폭력성을 가진 치매 환자여서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지니 실종된 어머

니를 수없이 찾아 나서야 했고 때론 어린 손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해 더는 한집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

요양시설에 모셨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면 당신이 직접 돌볼 수 있으니 당장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없으니 멀쩡한 아버지에게 시달림을 받는 판국이라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모셔 왔으나 아버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24시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피로가 누적돼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

어머니가 사라질 때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끝이었다. 뒷마무리는 언제나 내가 해야 했고 나는 조퇴와 휴가를 반복하며 회사에 다니다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결국 퇴사해야만 했다.

사라진 어머니를 119와 경찰의 도움으로 갯벌에서 구조하기도 하고 산속에서 찾기도 하고 때론 도로 위에서 낯선 마을에서 찾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마에 퍼런 멍이 들어 있기도 했다.

이마에 멍이 든 후론 토하고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이라 해서 수술을 했는데 피는 멈췄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급속히 악화되어 어머니는 두 달 만에 완전히 의식 없이 침상에 누운 채 자력으로는 숨만 쉬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담당의가 음식을 못 드시니 콧줄을 끼워야 한다면서 동의해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노인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콧줄로 연명하게 됐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회사도 다닐 수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가족

조차 면회가 안 되는 시기를 보낸 후 유리 칸막이로 면회가 가능할 때 어머니를 뵈러 가니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 온 모습이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만질 수 있게 됐을 때는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어머니 모습은 상상하게 빠만 남은 채 미라 같이 변해 있었다.

담당의를 만나 앞으로 어머니가 의식을 차릴 확률이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학적으로는 없으면서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했다. 나는 더 이상의 연명은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테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으니 콧줄을 빼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콧줄은 치료가 아니고 음식을 주입하는 것이라 뺄 수 없다고 했다. 콧줄을 끼워야 한다고 동의를 구할 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냐? 물었지만 다 소용없었고 정 빼고 싶다면 콧줄을 빼줄 다른 병원을 구해 옮기든지 퇴원을 시키라고 했다. 퇴원하면 얼마나 살겠냐고 물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2~3일 길어도 1주일엔 넘기지 못한다 했다.

어머니는 침상에서 의식불명이었다.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의식 없이 콧줄로 3년을 연명한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퇴원 절차를 밟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가제에 우유를 적서 어머니 입에 대드려 우유가 스며들게 하는 게 고작이었다. 처음 어머니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옷을 벗기던 아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서 가보니 어머니의 하체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 몸을 돌리는데 무릎 관절이며 팔꿈치 관절이 다 굳어서 구부러지지 않아 마른 통나무를 굴리는 것만 같았다. 의식은 없으셔도 수시로 가제에 우유를 묻혀 입에 대드리고 기저

귀도 자주 확인해서 갈아 드렸다.

그렇게 집에 모시고 온 지 삼 일째 되던 날, 이마에 미열이 느껴져서 물수건을 올려드리고 눈가에 고여 있는 눈물을 화장지로 닦아드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지셨음이 느껴졌다. 손목을 잡아 봐도 목에 손을 대고 가슴에 귀를 대봐도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의식 없이 노인병원에서 3년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3일을 보내고 외견상 너무 평온하게 86년의 생을 마무리하셨다.

살갗이 검게 변하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다시 의식을 차릴 확률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콧줄을 뺄 수 없다고 하던 의사의 말이 과연 진정 생명의 존귀함 때문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식구들이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날 모두에게 말했다.

“내가 치매로 10분 전에 한 말을 또 하고 10분 전 먹고도 안 먹었다고 말할 동안 나를 집에 두지 말고 요양시설로 보내라. 그리고 요양시설에 있는 내가 의식이 없어졌을 때 의사가 콧줄 운운하거든 절대 동의하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도 존엄사며 안락사의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의식이 뚜렷하더라도 일정 나이 이상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또는 의식이 없더라도 치료될 가망이 없고 깨어날 확률도 없는 환자라면 존엄사,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비참한 모습으로 환자를 연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 모독은 아닐지. ‘나답게’ ‘명예롭게’ ‘존엄한’ 죽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선택할 수 없는지, 우리는 왜 죽음을 생명만큼 존중하지 않는지.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든 많은 생각이 내내 마음에 남는다.

Letter 11

이웃집 보일러

김정선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매 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아파트 입구에 목욕봉사차가 온다. 1층에 사시는 거동이 약간 불편한 할아버지가 이용하시는 듯 했는데 언제부턴가 차가 안 보여서 ‘요양원에 가셨나’ 생각했다. 그러다 평소엔 눈인사 정도만 나누던 할머니를 뵈게 되어 “할아버지 병원에 가셨나요?” 여쭙더니 두 달 전에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고 할머니는 서울 사는 따님 집에서 쪽 계시다가 며칠 전에야 돌아왔다고 말씀 하셨다.

그 후로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님이 나의 고등학교 18년 선배라는 것과 아흔의 나이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시작할 때 구십의 나이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워하고 적적해하신 게 떠오르기도 하여 가끔은 선배 집에 들어가서 차를 나누기도 했다. 선배는 혼

자가 되신 후로 아파트 여러 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주 담소를 나누셨고 특히 나를 고교 후배라고 더 좋아하고 편해하시는 듯했다. 나도 엄마 같은 선배님을 만나 마음이 열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다.

작년 11월엔 선배님이 다시 서울 딸 집에서 다녀오셨는데 오랜만에 들린 선배 집이 너무 추웠고 선배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셨다. 춥지 않냐고 물었더니 보일러는 틀어놨다며 괜찮다 하셨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에 급히 좀 와줄 수 있냐고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려가 보니 며칠 전과는 다르게 집이 후끈하였고 보일러가 밤새도록 80도에서 6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계속 돌아간다고 했다. 살펴보니 같은 아파트인데도 우리 집 보일러와는 다른 회사 제품이라 작동법이 좀 생소했는데 온도 설정이 실내온도가 아니고 바닥온도로 되어 있었다. 마침 온도조절기 위에 대리점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로 문의하니 바닥온도를 65도로 맞추면 실내온도가 19도 정도 된다 하여 그렇게 해드렸다.

그런데 다음날 또 선배에게 전화가 와서 내려가 보니 밤새 온도가 또 오르락내리락 했단다. 대리점에 문의해 보니 원래 65도를 맞추어 놓아도 아래위로 10도 정도 그럴 수 있다 해서 선배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보일러 하루 사용량이 같은 평수인 우리 집의 두 배 반 정도 많고 바닥도 많이 뜨겁다 해서 온도를 60도로 낮추기로 했다.

작년 겨울까지는 돌아가신 남편 분이 집안 보일러 온도 관리를 해주고 선배는 남편분만 믿고 사신 듯했다. 남편이 가시고 처음 맞는 겨울이라 선배는 평소 얘기 나누던 분들에게 부탁했는데 다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해놓았는데 여전히 춥거나 더워서 나에게 세 번째로 도움을 청한 거라 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완전히 해결해 드릴 요량으로 그다음 날은 55도로 또 그다음 날은 50도로 낮추어봤는데 여전히 보일러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사용량도 우리 집보다 훨씬 많아 제대로 서비스를 받아보자고 권하고 대신 신청해 드렸다. 오후 두 시쯤 기사님 전화가 올 것이고 출장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밖에 나왔는데 선배에게 또 전화가 왔다. 보일러 수리 기사가 휴대폰으로 조절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데 할 줄 모른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 바빠 하던 일을 마치고 달려가서 기사 분이 요청한 대로 사진을 찍어 보내니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라고 알려주셨고 기사님 말씀대로 누르니 바닥온도에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실내온도로 화면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단지 사용법을 몰랐던 것일 뿐! 실내온도를 23도로 맞추어드리니 선배는 ‘고장이면 출장비에 수리비까지 큰돈이 들겠구나 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며 좋아하셨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오래전 친정엄마가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며 전화하셨던 기억이 났다. 수리 요청할 테니 가스레인지 회사 번호를 불러 달라고 했더니 보통학교 2학년 중퇴인 엄마가 가스레인지 위에 적힌 영어 알파벳을 읽을 수가 없어 당황해하셨던 기억.

1층 사는 선배도 연배로는 그 시대에 많이 배우신 분이니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 시대의 흐름을 타기가 버거우신 것 같았다. 나도 그 나이가 되면 미래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1층 선배와의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리고 또 하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처럼 ‘보일러는 보일러 기사님에게!’ 역시 전문가가 달랐다.

Letter 12

정말로 넘어지신 거 맞으세요?

김미영 | 경기도 오산시 가수로

몇 년 전부터 저는 주말 주택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시골에 머물며 각종 푸성귀를 심고 수확해서 저희도 먹고 지인들에게도 나눔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무공해 채소라며 좋아하실 때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든지요. 그 기쁜 마음 덕분에 주말살이를 더 신나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미나리, 상추, 고추 등 각종 채소를 바리바리 준비해서 커다란 비닐봉투에 꺾꺾 눌러 담아 양손에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나눠 먹기 위해서요. 당시 저는 러닝화 대신에 등산화를 즐겨 신었습니다. 처음 등산화를 살 때 다이얼식과 끈으로 매서 고리에 거는 방식이 있었는데 주저 없이 끈과 고리가 있는 등산화를 샀는데 그게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은 다소 을씨년스러웠던 오전이었는데 그건 개의치 않고 신나서 양손에 채소가 든 봉투를 들고 나섰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갈 즈음 “어어어~ 아아~” 양손에 들고 있던 봉투는 저만치 날아가서 떨어졌고 저는 장승이 앞으로 넘어가듯 그렇게 속절없이 앞으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등산화의 고리에 한쪽 끈이 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 발은 자연스럽게 모여져 버렸고 체중을 분산시킬 수도 순발력 있게 발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힌 것이지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넘어지면서 최대한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넘어진 덕분에 코는 안 다치고 한쪽 눈 옆 피부와 입술이 터져버렸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순간 저는 땅이 저를 때린 줄 알았습니다. 딱! 하고 얼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지 아픈 상황에서 겨우겨우 추스르고 일어나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데 저만치서 총각 세 명이 걸어오더군요. 순간 아픈 것보다 창피한 마음이 더 앞섰고 최대한 표정을 다듬으며 정경부인처럼 다소 곱하게 앉아선 제 앞으로 지나치는 그 총각들을 향해 ‘씨익~’ 웃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그들은 제가 웃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다만 눈으로는 웃었겠지요. 나중에 알았지만 피는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간 뒤, 마저 아픈 표정을 다 짓고는 저만치 널브러져 있는 채소 봉투 두 개를 정리해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보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나 얼굴 한쪽은 콘크리트 바닥에 긁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입술 두께는 평소의 10배는 족히 되게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입술에서도 피가 떨어지기에 입속도 찢어졌겠다 싶어서 입술을 들춰서 보니 앞니 한 개

의 절반이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살다 살다 넘어져서 이가 다 부러지다니요. 마침 자고 있던 큰딸에게 처참한 물골을 보여주며 동시에 입술을 들춰서 지독한 현장을 보여주었더니 기절할 듯 놀라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마, 얼른 병원에 가요. 그런데 부러진 이 반쪽은 어딴어요?”

“모르지. 엄만 이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있었어.”

“그럼 엄마 얼른 다시 가서서 이 찾아보세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실종된 반쪽 이를 찾아오랍니다. 그 말에 다시 밖으로 나갔고 넘어진 곳 근처로 부러진 이를 살살이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가 없네. 어찌냐~.”

“엄마, 혹시 당황하셔서 그냥 꿀꺽 삼키신 거 아녜요?”

아이고, 점점 무서운 말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희한하기도 하더군요. 아이가 말한 ‘삼킨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 정말로 삼킨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괜스레 가슴이 쿵쿵 뒹가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기도 한 것이요.

피가 계속 나오면 응급실이라도 가려고 했더니 다행히 멈추었고 치과에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길 목 빠지게 기다려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얼굴을 다 갈리고 입술까지 터지고 통통 부은 제 모습에 치과 직원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외출을 했는데요. 고리 달린 등산화에 끈이 끼이면서 넘어져서 다쳤고 이가 부러졌어요.”

이 말을 적어도 스무 번은 더 한 듯합니다. 제 말을 듣고도 못 믿겠는지 묻고 또 물어서요. 상담을 거쳐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또한 표정을 최대한 평온하게 지

으려고 애는 쓰지만 눈빛엔 ‘이건 분명히 어디서 얻어맞은 거야’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등산화 고리에 끈이 끼어서 넘어졌어요.”

반신반의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었고 크라운으로 부러진 이를 본을 뜬 후 바로 할 수 없다며 임시 치아로 대체하며 그 처치가 마무리가 다 되어갈 무렵에 또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 의료진은 그 어떤 의무가 있어서요. 혹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선생님, 진짜로 길에서 넘어진 거 맞습니다.”

여전히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십니다. 치료가 끝나고 결제를 위해서 대기실에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겠다’는 듯한 표정의 의사 선생님께서 급하게 또 나오셔서 물으십니다.

“정말로 넘어지신 거 맞으시지요?”

“네! 넘어진 것 맞고요. 선생님,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맞고 살게 생겼나. 때리면 때렸지 맞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제야 안심하신 듯 진료실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최소 전치 4주 이상은 나올 법한 처참한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신발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고리 달린 등산화를 패대기를 치고는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얼식 등산화를 주문해 주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다이얼식 등산화를 새로 얻게 되었고 기념으로 찍어놓은 제 휴대폰 갤러리에는 당시의 참상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참혹한 얼굴 사진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진료한 치과 선생님께서 의심하실만했습니다.

Letter 13

생활지원사의 기쁨과 슬픔

나순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50 세 이후의 삶은 그간의 삶과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동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아직도 저의 직업을 묻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드리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필요한 아주 많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이 생소해서 아주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방문도 못하고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을 모르는 채 전화로만 안부를

물으려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어르신들과 지낸 시간이 쌓이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활지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벗’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외로워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지위에서 일을 하셨든 많은 재산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훌륭한 자식을 두었어도 다들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깐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도생하는 시대라 먹고살기 급급한 요즘 살뜰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챙겨주는 자식은 흔치 않아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런 자식 중의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은 오직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오시느라 마음속 깊은 얘기들을 꺼낼 기회도 없었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고 더운 여름날은 더위 조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셔라, 빙판길은 위험하니 외출 자제하셔라 일상적인 조언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무척 고마워하면서 생활지원사인 제 안전도 염려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내면서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어르신들은 그동안 숨겨둔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는데 많은 어르신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시 92세이셨던 어르신은 그 연세라고는 믿을 수 없게 쿨 하신 분이었습니다. TV 채널은 항상 스포츠와 종교 방송 그리고 뉴스를 챙겨 보셨어요. 첫 방문 때부터 총기가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구나 싶었지

요. 스포츠 채널을 보면서 선수들 이름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또 어르신은 다른 어르신들이 심심하다 외롭다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 한 순간도 심심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수년 전 폴란드로 해외 파견 나갔던 아들을 따라서 다녀오신 유럽 여행 앨범을 꺼내 놓고 사진 한 장 한 장에 얽힌 배경 설명을 어찌나 선명하고 맛깔나게 들려주시는지 덩달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단지 걱정이 있다면 늘 “안 죽어 걱정이야~” 말씀하셔서 함께 웃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게 내리던 날엔 “머지않아 저 비도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다시 뜬다” 하시면서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유명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꽤 많았고 어르신의 어머니는 당시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르신이 학교 입학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유모의 손에서 자라셨는데 어느 날 일본인들이 집에 쳐들어와 곡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아버지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부모님을 모두 잃은 어르신은 어렵게 살다가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둘 사이는 나쁘지 않았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르신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후 생활고를 겪던 어르신은 지인의 소개로 3남 1녀를 둔 사업가와 재혼했는데 남자에게 별 관심은 없었으나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엄마 없이 자랄 어린아이들이 불쌍해서 잘 길러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니 어르신의 마음이 충분

히 이해됐습니다. 어르신의 그런 고운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르신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나란히 서울대에 보내고 셋째 아들과 딸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줄 알았던 어르신은 재혼한 남편과 두 명의 딸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되고 전처의 아이들도 모두 좋은 대학에 가서 마음 편하게 생활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사업도 부도가 나서 어르신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8명 가족의 가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인삼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일본인들을 상대로 인삼 장사를 한다니 '삶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허탈해하며 말씀하셨지요.

때마침 어르신 옆에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자라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자라의 피만 먹기에 그들이 버리고 간 자라를 얻어다 병석에 있는 남편에게 수년을 달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인지 누워만 계시던 남편이 앉게 되고 점차 서게 되고 다시 걷게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의지가 강하고 부지런했던 남편은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넘어지셔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편의 대하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어르신은 감정을 다 빼고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셨지요. 그제야 어르신이 당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단 한 순간도 심심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그 굴곡진 삶을 어찌 버티고 살아내셨을까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러니 세상을 순간에 연연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일에도 너무 힘 빠지 말고 부모는 그저 똑바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세



상 끝인가 싶을 때 모퉁이를 돌면 꼭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 어르신은 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며 대기업 회장이 저승 갈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갖고 가더냐 말씀하시며 서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특유의 농담을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시간이 흐르고 담당구역이 바뀌면서 최근 어르신의 소식은 동료 생활지원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올봄에 돌아가셨다고요. 마침내 영면에 드신 어르신. 긴 여정을 최선을 다해 완주하신 어르신의 삶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르신과 함께했던 유쾌한 날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어르신의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생활지원사로서 어르신들 곁에서 조금은 덜 춥고 덜 외롭게 늘 소통하며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Letter 14

시골 초등학교를 선택한 손자

김도연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제 손자는 작년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거산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들네는 아이를 어떤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겠지요.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이 다르단 거였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자는 입장이었고 며느리는 산으로 들로 자연학습을 하며 다닐 수 있는 시골 학교에 보내자는 의견이었죠. 아들이 시골 학교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골 학교는 차를 타고 왕복 40분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네는 시댁과 친정에 의견을 물었고 아들과 장모는 집 앞 학교를 보내자는 파, 며느리와 저는 시골 학교를 보내자는 파, 두 파로

편이 나뉘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질 않아서 손자에게 결정권을 주니 손자는 시골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며느리와 저는 환호하며 좋아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왕복 40분을 차로 다니면서 힘들진 않을까,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겹쳤지만 우리 손자는 잘 해낼 거라 믿으며 손자의 시골 학교생활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입학한 거산 초등학교는 전 학년을 통틀어 반이 6개뿐입니다. 각 학년에 한 반씩, 1학년 학생 수는 열세 명 정도예요. 손자가 입학하는 날 5~6학년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이 1학년 동생들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학교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따뜻하고 정다운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봄이면 산으로 들로 나가서 나무 이름, 풀이름, 새 이름을 공부하고 학교 옆 텃밭에서 상추, 고추, 감자 등 채소를 심어 간식도 만들어 먹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논에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매미, 메뚜기를 잡아 논다고 합니다. 손자의 학교생활을 전해 들으며 요즘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자연을 몸소 느끼며 공부할 수 있다니 손자를 둔 할미로서 감격했어요.

우리 손주를 가르쳐주시는 1학년 반 선생님께선 특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아침, 선생님께선 아이들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차를 따라 줄 선생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학생들 생일에는 케이크를 준비해서 함께 축하하고 엮드려서 인디언 밥 게임도 하고요. 숙제로 독서하고 독후감 쓰기, 일기 쓰기를 하

는데 독후감 공책, 일기장에는 매일 선생님의 따뜻한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원우에게만 이리 글을 써주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학생 13명 모두에게 자상함을 보이신다고 하네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태어나서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이리도 따뜻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맞이하다니 우리 손자는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손자가 많이 자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에 적힌 선생님의 깨알 같은 글을 보니 다시 가슴이 찡해집니다. 1학년을 마치며 선생님께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의 편지가 가슴에 와닿는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손자 편지라네요.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박진환 선생님께.

처음에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낯설었는데 이제는 헤어지게 돼서 슬퍼요. 선생님과 놀러 가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혼날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웠지만 선생님의 잔소리는 다 저희를 위한 말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도사라고 했지만 사실 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인정해서 선생님께 ‘웃기는 도사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죠. 선생님과 하루는 계속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싫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해요. 선생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편지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도 우리 손자에게도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충남 거산 초등학교 1학년 박진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달의 손편지

여행의 기쁨

박경숙 | 전남 목포시 용당로

안녕하세요 양 희은. 김 일중 님.

다시 오랜만에 편지 써 봅니다

암으로 수술후 1년 을 쉬고 있다 보니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조금만
서운해도 울기도 라인 있던 중이었는데 급 자여의 여행으로 다시 활기가
살아나구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지리는 여자 형제가 나영 오빠하나 있는데 캐나다 이민간 언니랑 오빠는
잘 생활도 양하곤 저희 세자매가 한현씨, 여행을 갔어요.

큰언니는 77 세로 장년에 활남을 지냈구은 지리가 첫번 여행이 언니가
환갑인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동생이란 언니는 서울살고 저만
목포에서 치열하게 일해야 해서 저만 여행을 못해보고 재밌었죠.

언니. 장내는 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곤 했지만 저는 평범삼 일하느라
연말생일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살았었는데 언니네 딸이 외국 지방사
당유음으로 근무하면서 언니 환갑때 큰금 50만원 스펀은 해주어서
저도 뽐내서 3월 휴가 겨우 내서 셋이 처음으로 짐남진 여행을 갔죠.

큰언니는 71 세로 작년에 칠순을 지냈거든요 저희가 친한 여행이 언니가
 환갑인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중생이런 언니는 서울살고 저만
 목동 가서 치열하게 일해야 했어서 저만 여행을 못해보고 재밌었죠.
 언니. 장내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곤 했지만 저는 평범살 일하느라
 연금생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살았었는데 언니네 딸이 외국 직방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언니 환갑때 현금 50만원 스펀드를 해주어서
 저도 뽕이서 3일 휴가 겨우 내서 셋이 처음으로 짐남친 여행을 갔죠.
 적은 비용만 내구 그럭 3일 숙소에서 자면서 근처를 다 들녔어
 일이나 많이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다 가서 앨범도 만들면서
 다음에 또 여행을 가져면서 다음을 기약했지만 전 또 망설였죠.
 일하면서 또 시간 배기가 힘들어서요 그때 심양도 아픈단 때였구...
 그러고 7년후 조카가 비행기값 공짜로 시댁 여행 갈수 있다고 가져왔을
 너무 힘들게 고민후 그때 어니면 안될것 같아서 또다시 힘들게 휴가를
 냈어요 그때는 그주. 아랍에미레이트 전차에게 가서 3일 두타이링
 구경 너무 볼링 볼링 잘하고 저희 셋이랑 터키는 일주일 한국
 여행객들이랑 딱키지은 만나서 일주일은 정말 환상이었죠.
 이만한 언니 정 많음은 캐나다 가보고는 처음 해외 여행 이었거든요.(25년전)
 딱딱한 일주일간의 터키는 환상이었어요.
 세 자매가 또 투덜 투덜 하며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조각이 위에서 너무 편하게 놀고 있었어요. 정말 그간의 고생에 대한 댓가 같구 그 추억으로 몇년 힘들든 참을수 있었어요.

그러구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난 또 해야야지 할수 있어. 하면서 다음을 준비 했어요. 그후 3년후 독일 그주. 자유여행.

그때는 조각까지 4명에서 정말 머치도록 즐거웠어요. 젊은피가 우릴 편히 인도하리 친철히 돌아다니며 독일 배구. 쓰시지. 칼렌...

야! 정말 이렇게 즐거워두 되나 살게 즐겁게 여행했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여행 가려 했을땐 코르나.

잠시 모두가 멈추었죠.

그러나 재작년. 제 환갑이었어요. 아들에게 얘기했죠.

9년전에 큰이모 환갑에 되면 누나가 스펀해서 여행 처음 갔으니 이번엔 아들이 스펀 좀 해야겠다. 해미 뒷거리 제주도로 간다라...

아들의 스펀으로 이번엔 세재개와 남편들 까지 같이 쿠락 4일 2연데 여행 당일 신니네 코르나로 맛내네랑 두합만 제주도로 가서

정말 감사한 여행을 하곤 있었어요. 해미 여행 한번도 못한 저의 남편이 제주도로도 감사했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간것도 선촌 여행때 가고

저희 시어머나가 칠순일때 친척 모시고 (18년 전) 거곤 처음이웠거든요.

많이 반찬하곤 이번 우리 제주에서 정말 잘지내곤 있었어요.

그러구 올해 저희 막내가 환갑을 맞아 막내 부부가 서창리아

7월 9일 여행 간다더군요. 이제 나도 쉬고 있고 그해도 영두도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연니랑 막내에게 영결 선물로
 과일을 헌냈는데 잘 받았다고 연니랑 통화 하다가 잠자기 연니가
 "정숙아 우리 둘이 막내네 여행에 따라 갈래?" 라는 거예요.
 그날 영두진도 생각 없고 연니 그대 남자 하면서 막내에게 연락했죠.
 우리도 잘하 있는지... 나자리가 남아있다더군요.
 진 여행도 만료된후 같이 있으니 재빨름 안타해서 열린 거서
 사진 찍고 여행 신청 하곤 왔어요. 이 설래임....
 7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여행합니다.
 또 몇년만에 가족게가 .. 그리고 막내네 생강이랑 여행합니다.
 정말 힘들고 아등 바등 살아온 . 체면을 다해서 살아온
 저에게 이정도 여행은 정말 큰 선물로 받아도 되겠죠?
 무를 안절도 점점 안 좋아지고 수호한지 1년 뒤에서 갔다오면
 병을 정도도 있지만 여행 준비는 너무 설렘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즐겁게 여행하곤 해서 또 편지 쓸수 있겠죠?
 아 늘 든 게신 형제 . 자매님들 . 항상 있습니다.
 마음 막기가 힘들기 가보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가까이 공부터
 여행해 남지요. 건강할때 열린....



여성시대 사진방



[8251] 단감 농장서 감나무 꺾질 벗기고 있습니다.



[0524] 세탁소 운동화 알바생입니다. 나이는 63세입니다.



[8922] 2시간을 들여서 세차했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도 마음은 깨끗하네요.



[1803] 사과밭에 가지치기하러 왔어요. 우리 문경 주흘산 경치입니다.



[0622] 옷이며 장난감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정리했어요. 정리하니 3박스 정도 나왔는데 기증 신청까지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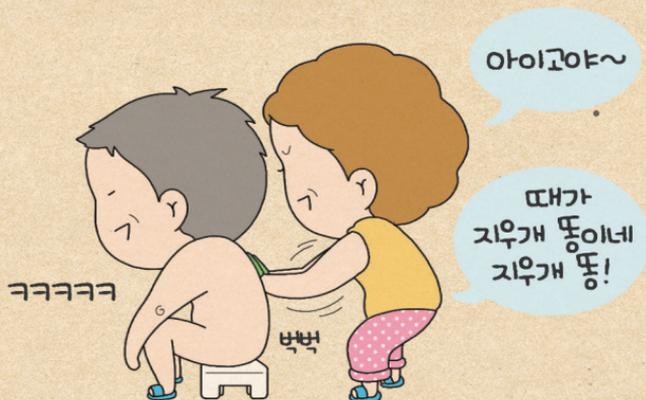


[4631]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 원룸 직접 도배해 주고 있습니다. 딸 독립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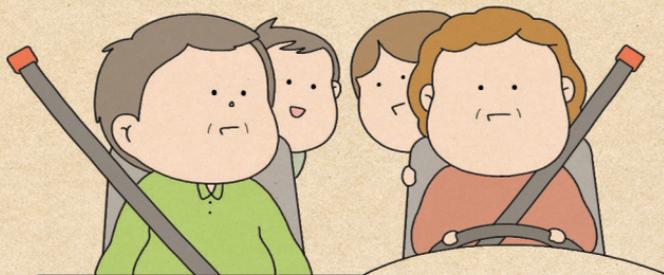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부산 해운대구 상어군 의
여성시대 가족 박경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결혼해 출가한 아들딸이 모두 함께 살던 시절
우리 네 식구는 제가 쉬는 날도만 되면
부산의 허심창으로 온천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즐거움이었지요.

하루는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걸까요
조금 어지러움을 느껴 안락의자에 누웠는데,
얼마가 지났는지



???



아빠!

아빠!

저는 욕탕 바닥에 누워있고
아들은 저를 목놓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에 안락의자에서
옆으로 툭 쓰러진 저를 발견한 아들은
재빨리 관계자들을 부르고 응급처치를 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아빠는 온천 금지!

동네 목욕탕도 금지!



목욕탕 출입 금지령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10여 년 후

고생하는 딸을 위해 손녀를 봐주고 돌아오는 길
아내는 꼭 온천목을 갑니다.

여보 내 허심칭
온천목 좀 갔다 오게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소.



함께 가지 못해 쓸쓸한 생각도 들지만,

등터리~♪



목실 문을 푹푹 두드리고 들어와
등을 밀어주는 아내의 고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한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1호 아동병원

IBK기업은행 개금동지점 거래고객
부산맘아동병원 김지숙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아동병원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관련된 접종과
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아동의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맘아동병원은 부산1호 아동병원으로써 지역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00년 개원한 김지숙소아과의
원을 모태로 2010년 개원한 부산맘
아동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병원으로 성장했다. 부산맘아
동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를 진료한다. 전문적
이고 종합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아동의 특
성 및 발달 단계에 맞춰 소아청소년
과 전문의에게 주기적으로 심층 교
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설 발달

의학 클리닉과 성장·비만 클리닉도
운영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이 상시 진료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초음파기기,
아토피 치료 블루레이저, LED 장비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도 부산맘아동병원의 자랑이다.

부산맘아동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는 호흡기 질환 등의 감염 환자 외에



방접종, 검진 등 비감염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호흡기 클리닉의 각 진료실에 음압기를 설치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의 2차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맘아동병원은 부산에서 최초로 문을 연 아동병원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제일 크다. 그렇다 보니 추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초기 심장질환을 발견하여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한 아이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거나 엄마 손을 잡고 오던 아이들이 결

혼해서 본인 아이를 데리고 올 때면 감동을 느낀다. 환자였던 어린아이가 성장해 대학을 졸업하고 방사선사로 취업한 일화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부산맘아동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많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문화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방문한다. 한번은 장기 근속근무자 포상 휴가로 직원들과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현지 가이드의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임을 확인하고 서로 영상통화를 했던 특별한 추억도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써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여 진료함으로써 많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졌다.

“사하구 관내 어린이들의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면서 입원 병상이 없어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이에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아동들의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경영이 어려워져 동네 소아과 의원의 폐업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감소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맘아동병원도 타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 실력 있는 의료진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기에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IBK기업은행 개금동지점 황인택 지점장은 “부산맘아동병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



역사회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소아과가 없어 애를 먹는 부모님들이 아픈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

에 의해 출시한 의료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부산맘아동병원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서로 윈윈하며 상생하는 관계가 되자”고 약속했다.



부산맘아동병원 김지숙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개금동지점 황인택 지점장

! 부산맘아동병원 김지숙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엄마의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라.
2.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라.
3. 실력 있는 의료진과 최신 장비를 갖춰라.

부산맘아동병원

대 표 김지숙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51 금동빌딩 2, 4~8층

전 화 051-271-8275

홈페이지 <http://busanmom.ilikedoc.kr/>



명품 주방용품을 만든다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거래고객

(주)퀸아트 황태욱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냄비, 프라이팬 등은 매일 쓰다시피 하는 주방용품이다 보니
주부들이 더욱 신경 써서 고르게 된다.
요리의 맛을 좌우하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퀸아트는 뛰어난 코팅 기술력으로 국내외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다.

퀸아트는 주방용품 제조업체다. 1993년 (주)대한테프론으로 창업하여 보다 다양한 주방용품을 개발하고자 1996년 공장을 확장하고 (주)퀸아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초기에는 전 제조 과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생성 공정을 각각 아웃소싱하고 퀸아트는 최종 조립과 출고, 수출 업무만 하고 있다.

“코팅, 가공 등 세부 공정은 모두 퀸아트에서 일하다가 독립한 직원들

에게 아웃소싱합니다. 퀸아트로 주문이 오면 프라이팬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구입하여 각 생산 공장에 주고 생산을 의뢰합니다. 퀸아트 직원이 각 공장을 돌아다니며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자회사나 다른 곳 없어요. 각 생산 공장은 퀸아트 주문을 최우선으로 생산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의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서로 윈윈하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전 제조공정을 아웃소싱하면서
도 회사가 굳건할 수 있는 것은 기술
과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퀴아트의 코팅기술력은 국내 최고
라고 자부한다. '이노블코팅'은 퀴아트
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 받은 코팅 기
술로 기존 테플론 코팅보다 훨씬 더
두껍고 강하며 기름 없이도 조리가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논스틱 기능
을 자랑하는 코팅 기술이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퀴아트 제품
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세계 방방곡곡에 수출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는데도 박
람회 같은 행사를 통해 퀴아트를 접
한 외국 바이어들이 계속해서 거래

를 제안하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
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모토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자는 거예
요. 코팅팬의 특성상 6개월 정도 쓰면
수명을 다하는데 저희 제품은 타제품
보다 내구성이 강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특히 이노블코팅은 저희
퀴아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 회사와 제품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회사
로 성장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수출을 주로 하다 보니 외
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회사가 휘청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자고 일



어나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다보니 물건만 납품해 주고 수금을 못 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의 월급만은 꼭 챙겨주었다. 그래서일까. 현재 퀸아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10~20여 년을 근속해 온 가족 같은 존재다.

“직원들이 가장 든든한 동반자예요 직원들에게 모든 걸 믿고 맡깁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직원들이 모두 장기근속하다 보니 제가 없어도

회사가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요 퀸아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정세가 불안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화합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이용복 지점장은 “퀸아트는 처음 공장을 매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타 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오직 IBK기업은행과 만 인연을 맺고 있는 든든한 고객”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품질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칭찬했다. 덧붙여 “직접 집에서 퀸아트의 제품을 사용하

는데 타 회사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걸 체감했다”고 소개하며 여성시대 독자분들에게 퀸아트 제품을 권하기도 했다. 한번 퀸아트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또다시 찾게 된다는 확신, 오직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믿음이다.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이용복 지점장(왼쪽)과 (주)퀸아트 황태옥 대표

! (주)퀸아트 황태옥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직원들과 화합하고 융합하라.
3. 오직 제품력으로 승부하라.

(주)퀸아트

대표 황태옥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28번길 29
전화 031-986-0531 홈페이지 <https://queenart.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내 사랑 다 줄 거야
- 84 나는 행복합니다
- 86 내 꿈의 단골손님
- 88 어디까지 가세요?
- 90 첫사랑 불러 선생님
- 92 최고의 탐견
- 95 벚꽃 이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 97 팔도잔디의 꿈을 아시나요?
- 101 위로는 늘 고프다
- 104 선배, 편안하신가요?
- 106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다 줄 거야

정영봉 | 충북 증평군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죠.

땡그란 눈에 미니 마우스를 닮은 그녀의 별명은 ‘땡쥐’.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을 만큼 작고 소중한 그녀는 저와 다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4cm인 여자친구와 178cm 저의 키 차이는 무려 24cm. 저희를 질투하던 친구들은 “재네 커플은 꼭 고목에 매달린 매미 같지 않냐?” 놀려댔지만 제 눈에 그녀는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아마 제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정말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줬을 텐데 그리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땡쥐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땡쥐의 집까지 바래다줄 때면 땡쥐의 집 골목 입

구에서부터 땡쥐를 업고 갔습니다. 땡쥐의 따뜻한 온기가 제 등에서 느껴질 때마다 땡쥐를 업고 냅다 도망쳐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결혼 전까지 지켜 주고 싶은 생각에 욕심을 버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끔 땡쥐가 전화로 “오빠! 우리 과장님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 영영~ 오빠가 혼내줘!” 말하면 “뭘! 감히 우리 예쁜 땡쥐를 울려? 그 과장님 어딴어? 오빠가 그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 줄게. 거기 딱 기다려.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땡쥐를 괴롭히는 과장이란 사람을 혼내주려고 땡쥐네 회사로 곧장 달려갔지만 회사 앞에 경비 아저씨를 보는 순간 잠시 잃었던 이성이 되살아났고 땡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네 회사 앞인데 오빠가 네 사무실에 쳐들어가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참는 거야. 오빠 마음 알지?”

땡쥐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땡쥐가 잠시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하루에 편지를 서너 통씩 시리즈로 써서 보냈더니 우체국 직원분이 그러더군요. 요즘 우푼값이 얼마인데 편지를 여러 장 보내나면서 한 통에 넣어서 보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 통이 아닌 세 통의 편지를 받고 행복해할 땡쥐의 모습을 떠올리니 우푼값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땡쥐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못 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엔 아버지가 베란다에 세워 놓은 비싼 산악용 자전거를 슬쩍 몰래 팔아서 땡쥐가 예쁘다고 했던 청바지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땡쥐는 예쁜 청바지를 보며 마냥 행복해했어요. 머지않아서 우리 집에선 산악용 자전거가 없어졌단 게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



고 범인이 저라는 게 밝혀지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물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땡쥐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8년간의 연애 끝 그녀는 지금 제 휴대폰 단축키 0번에 우리 땡쥐가 아닌 '깜찍이 여봉'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라고 하면 아내는 징그럽다며 부끄러워하지만 남편의 애정 고백이 싫지 않은지 장모님께 “엄마~ 정 서방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 정말 내가 미쳐” 자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올해로 결혼 22년 차. 지금도 아내는 제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깜찍이 땡쥐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나는 행복합니다

김선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당신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 당신과 함께했던 세월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스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더는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죠. 복숭아 과수원과 수박밭으로 데이트를 갈 때면 어찌나 즐겁고 행복하든지요.

어느 날엔 용기를 내어 결혼을 승낙받으러 소주 몇 병 사 들고 당신 집에 찾아갔었죠. 그때 장인어른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에 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엔 하얀 눈이 내렸지요. 온 산 천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차가 다니지 못할 지경이라 친구가 몰고 온 경운기를 타고 오금재를 넘어 별교 예식장에 도착해 겨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지요.

적은 돈으로 단칸방 월세를 주고 어렵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들 낳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방위 영장까지 나와서 몹시 곤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엔 아기를 둘 낳으면 군 면제라는 말이 있어서 없는 아이를 출생 신고하여 기다렸으나 소문과 다르게 군 면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사망 신고를 했던 웃지 못할 기억도 나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당신은 나 대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베사메무초’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끌었죠. 그때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가난과는 상관이 없었는지 자식이 큰 복이라 생각하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고생을 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네요.

겨우 자식 셋 다 출가시키고 자식들은 자기들 인생 잘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 생겨버렸네요. 나는 나대로 친구들이 좋아서 취미활동 한다고 동호회나 계모임을 여러 개 하다 보니 밖으로 놀러 다니고 당신은 손주들 봐준다고 자식들 집에서 상주하며 떨어져 살기를 4~5년. 그러다 보니 삶의 리듬도 깨지고 싸움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자, 잘혼하자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 썼다가 찢어버린 이혼 서류만 몇 장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에 사는 작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상담도 받고 우리도 노력하기로 했지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일요일이면 맛난 거 싸 들고 경치 좋은 둘레길이며 해안 길이며 정처 없이 걷다가 피곤하면 쉬면서 나는 건강을 위하여 당신은 사랑을 위하여 막걸리잔을 부딪치는 지금이 난 참 행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때 인연의 끈을 놓아 버렸다면 현재와 같이 좋은 날은 없었겠지요. 앞으로 모임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당신 맘에 드는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순 여사.

사랑 사랑 사랑

내 꿈의 단골손님

문미정 | 경기도 군포시

“여보야~ 일어나용~ 회사 가야지.”

“으응~ 나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어. 너무 졸려.”

“그럼 괴롭혀서 깨운다? 움쪽쪽쪽~ 이래도 안 일어나?”

“하하하~ 뭐야~ 정말 짓궂어!”

또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의 남자 주인공은 같은 건축사사무소 동료인 백마 탄 왕자님을 닮은 공 기사님. 언제부터 그가 꿈에 나왔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이미 그가 지켜줘야 할 공주님이 있습니다. 임자가 있는 남자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어찌면 좋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건 괜찮잖아요. 다만 상상엔 끝이 없고 돈도 들지 않으니 큰 문제입니다. 근무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공 기사님과 알콩달콩 깨 볶는 모습을 상

상하고 있는 제가 한심해 죽겠습니다.

탕비실에서 공 기사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상상부터 회의실 책상 밑에서 공 기사님의 손을 덥석 잡는 상상까지 아마 제 속마음이 밖으로 다 들린다면 저는 공 기사님에게 고소당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대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저의 이 검은 속내를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야유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정 씨, 야유회는 처음이죠? 술 좀 드셨나 보네요. 잠깐 같이 걸을까요?”

“그... 그럴까요?”

살짝 달아오른 몸이 시원한 밤공기를 맞으니 기분이 들뜨더군요. 발걸음을 맞춰 걷는 사람이 나의 백마 탄 기사님이라서 더 그랬을까요? 아니면 공 기사님의 네 번째 약지에 끼워져 있던 반지가 사라져서였을까요?

“공 기사님! 저 공 기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공 기사님 마음 모르겠으면 지금 확인해 봐요.”

순식간이었어요. 쪽 소리를 내며 공 기사님의 입술과 제 입술이 충돌했다가 떨어진 것이. 제가 남자라는 생명체에게 고백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제가 먼저 첫 키스를 한다니요. 술기운이 바짝 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김에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그의 입술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런데 그도 싫지 않았는지 제 입술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사내 연애가 시작되었고 몰래 1년 반 동안 사귀다가 지금까지 24년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네요. 역시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일까요?

사랑 사랑 사랑

어디까지 가세요?

임두현 | 서울 마포구

지난주 홍대에서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고 을지로3가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서성이다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어오셨다.

“충각, 홍제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홍제역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여기저기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는 데 앞에 있던 키 큰 여자는 싸늘하게 “몰라요” 하는 거다.

순간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 지하철 노선표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려고 일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높고 카랑카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아주머니!”

내 옆에 앉아 있던 여자분이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

던 걸까? 그녀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푸하하하’ 웃음이 터졌다.

아주머니께 길을 알려드리고 다시 지하철이 오길 기다리는데 “아까 앞에 저 여자, 무지하게 싸가지 없죠?” 그녀가 말했다.

역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용기 내어 여자분께 물었다.

“그쪽은 어디까지 가세요?”

“저 충무로역이요. 그런데 지하철이 너무 안 오네요.”

하면서 빙긋 웃는데 순간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겪는 묘한 상황에 그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다.

“저 여기 길 잘 아는데 충무로까지 걸어갈래요?”

순간 아차 싶었다.

“그래요~ 밖에는 시원하니까 좋네요.”

사실 난 충무로를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더 가야 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녀와 걸었다.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도 공유하고 전화번호까지 맞교환했다.

그렇게 그날 밤 그녀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저 사실 이수역 살아요. 그쪽하고 걸어가느라 막차 놓쳤으니까 그쪽이 책임지세요.’

매혹적이고 당찬 그녀와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설레고 행복하다.

사랑 사랑 사랑

첫사랑 불러 선생님

우미숙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자, 이 단어 읽어 볼 사람?”

“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 미숙이가 한 번 읽어보자.”

“제... 타미... 제 타이미...”

“하하! 우리 미숙이 수업 제대로 안 들었구나. 다시 쥬뽀므~ 쥬뽀므 뜻이 뭐라고 했지?”

“사랑해! 사랑해~요 선생님!”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나의 첫사랑이 있다. 내게 사랑이란 단어를 가르쳐준 나의 첫사랑 불러 선생님. 선생님은 불어를 닮아 신비롭고 우아한 매력을 가진 분이셨다. 그래서였을까 나처럼 선생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특별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

가 생각해 낸 방법은 학교가 끝난 후 반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시간, 불어 선생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 학교에 올 땐 어떤 길로 오시는지를 파악해 뒀다가 우연을 가장해 길에서 마주친 척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멀리서 선생님의 그림자가 보였다. 전날 밤 머릿속으로 그렸던 대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봉주르~ 선생님 아까 봤어요? 시벨세키?”

“뭘? 시... 시벨세키? 어디?”

“여기 있다! 선생님 시벨롬! 선생님께서 시벨롬이 잘생긴 남자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 시벨롬? 하하하! 이 녀석아~”

그 뒤로도 선생님은 불어를 잘하는 여자를 좋아할 거라는 마음에 열심히 불어를 공부했다. 학교 가는 길에 선생님을 만나면 나의 불어 실력을 선생님께 보여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의 짝사랑은 계속됐고 3학년 때부터 불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내 마음속에서 첫사랑도 잊혀 갔다.

졸업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첫사랑 하면 불어 선생님이 떠오른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들을 때면 더욱 그렇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라는 노래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 불어 선생님의 얼굴을 그려본다.

사랑 사랑 사랑

최고의 탐견

김지혜 | 경기도 하남시

“아아- 빅보스 송신, 이쁜이 나와라 오바!”

“아아- 이쁜이 응답합니다. 오바.”

“군인이면 남친 없겠습니까. 훈련 마치고 나랑 데이트하러 가지지 말입니다.”

“지금 유혹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딱 떨어진 어깨, 큰 키에 듬직한 체구, 날렵하고 큰 코를 가진 정우성 짝퉁 같은 이 남자가 바로 제 남자친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던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를 따라 공군 학사장교 시험에 응했고 체력장에서 특급 여전사로 인정받아 공군 학사장교 112기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첫 자대배치를 받은 곳은 남자친구와 같은 공군

37전대. 저희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같은 부대 안에서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만남을 응원하고 있는지 때마침 제게 '사랑의 큐피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충성! 상병 엄OO! 이 한 몸 다 바쳐 소대장님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키에 바짝 마른 몸매, 단춧구멍처럼 찢어진 눈, 잘생긴 멀치를 닮은 내 사랑의 큐피드는 사랑의 오작교가 되어 저 대신 남자친구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등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이 시대의 참된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사랑도 당번병인 엄OO에 대한 신임도 두터워질 때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 탈출을 대비하여 조종사 구출 작전 훈련을 나갔을 때였어요. 감기 기운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만능 해결사인 사랑의 큐피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가 구해온 좌약 해열제를 남자친구에게 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텐트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혜! 아니, 김 중위!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나한테 이딴 약을 줘?”

밖에 나가보니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피임약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내가 준 약은 해열제일 텐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는 강력한 한랭전선이 형성되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별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때나마 사랑의 큐피드였던 엄OO가 전역하는 날 돌이켜 술 한잔 먹고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대장님, 실수 한 번 하겠습니다. 저 소대장님을 사랑합니다. 소대장님은 저의 종교이자 신입니다. 평생 소대장님의 당번병으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의 큐피드인 줄 알았던 그가 사랑의 큐피드가 아닌 사랑에 빠진 남자이자 질투에 눈이 멀어 상견례에 가는 걸 막기 위해 제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아픈 남자친구에게 해열제 대신 피임약을 준 범인이었던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중간에서 절 속였다는 배신감에 저는 그의 고백을 무시했고 그가 전역한 이후에 보내오는 편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신입 헬기 교육 조종사 5명이 전입을 오던 날 새로운 얼굴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군복 위에 선명히 새겨진 이름 ‘엄OO’. 제가 귀신을 본 게 아니라는 듯 곧이어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소대장님의 영원한 당번병! 하사 엄OO! 김지혜 중위님 곁으로 복귀 신고합니다! 소대장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 주십시오!”

오직 저를 보기 위해서 다니던 명문대학교도 포기하고 헬기 조종사가 됐다는 이 남자. 결국 저는 이 남자와 2008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코브라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는 톰 크루즈보다 더 잘생기고 멋진 대한민국 최고의 탑건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벚꽃 이별

애청자

저는 벚꽃이 필 때쯤이면 항상 이별을 합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봄의 왈츠가 아니고 봄의 저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남들은 봄이 오면 사랑에 빠지고 삶에 활력이 샘솟는다 하던데 전 반대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게는 작년 12월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5살 연하로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중 스펙도 최고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꾸만 이 친구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저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의 직장, 연봉, 직위, 소유물들. 남자친구의 스펙이 좋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제 나이가 더 많다 보니 부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 저는 집도 자가고 자동차도 수입 제품으로 남자들이 꽤 좋아하는 종류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그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 줄 능력과 위치가 되고 그 친구 또한 저의 니즈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이게 사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세계 왔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저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느낌. 전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구매한 고객이고 상대는 지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판매자란 느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사랑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제 연애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왜 하나, 또 이별 당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봄의 저주를 깨고 싶고 더 늦기 전에 진짜 사랑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봄이 다가올수록 이 연애를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팔도잔디의 꿈을 아시나요?

지순연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이제는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산업체 고등학교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6회 졸업생 지순연입니다. 졸업 당시 저는 3학년 28반. 한 학년에 40학급이나 있던 시절이었죠.

여고생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62세. 그때 젊음을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여고 동창들과는 달리 각자의 부서에서 고생했던 일, 한일여실고로 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가정 이야기 등을 나누곤 했습니다.

해자 후배는 지금도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큰언니는 일반고에 가고 오빠는 대학 공부도 하는데 나는 왜 주경야독, 왜 나만 그래야 하나? 뭔가 억울했다’라고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키를 짤 때는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몸무게 짤 때는 호주머니에 돌맹이를 넣어 간신히 합격했다고요. 그 당시 우린 일하며 공부해야 하기에

신체가 튼튼해야 했거든요.

내 친구 매자 역시 오빠의 대학 공부를 위해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해라’ 말씀하셨지만 마산에 한일합섬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강원도 동해에서 기차 타고 무작정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는 마산으로 왔답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딸이 당당하게 교복 입고 부모님 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떠난 때가 우리 나이 열일곱 살. 강원도 동해에서 부산으로 무궁화 열차를 타고 출발하니 저녁 8시가 넘어서 도착했다는데 돈이 없어 여인숙 할머니에게 “찬밥 있으면 좀 주세요~” 했더니 밥을 한 양푼을 주셨다고 합니다.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은 터라 라면에 밥 말아서 반찬 없는 밥을 먹고 다음 날 다시 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출발하여 한일합섬에 도착했지만 말로만 들었던 마산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진학은 만만치 않았습시다.

전국에서 가난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여학생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신체검사에서 키와 몸무게 미달로 떨어지고 1년을 3교대로 일하면서 진학하는 날만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교복을 입고 달려가 아버지께 큰절을 올렸더니 아버지께서 영영 우시면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후배 정자는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입학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설상가상으로 폐렴을 앓던 동생마저 돈이 없어 병원 문턱 한번 넘어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저세상으로 갔답니다. 엄마는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며 아무도 모르게 어둑한 밤 논두렁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으셨고 그 모습을 우연히 훑쳐보게 된 어린 정자는 자신

도 신작로의 어둠 속에 갇힐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가뭄을 결심하고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답니다.

열일곱 어린 나이에 한일합섬 여공이 된 우리들은 죄수복 같았던 푸른 작업복과 어느 여학생 부럽지 않았던 교복을 번갈아 입으며 분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회사의 생산목표량 달성을 위해 짓눌린 삶을 살아야 했지만 배움을 이어가고자 했던 절박한 목표가 있었고 같은 꿈을 가진 또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해 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등근달을 보면 고향의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었던 병아리들, 그녀들이 이제 철수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끝없이 펼쳐냅니다.

야간작업하면서 잠을 이겨내려고 서서 졸았던 기억, 잔업으로 학교를 못 가는 날이면 도망쳐서 학교에 갔던 학구열, 시험 기간에 작업하면서도 메모한 쪽지를 끼워놓고 일하다가 주임에게 들켜서 혼날까 두려움에 떨던 그때 말없이 쪽지만 스윽 뽑아 가셨던 고마운 주임님 이야기, 또 기숙사에서 쓰던 군용 모포를 칼각으로 정리하고 밤마다 했던 점호, 빠지면 방 식구들이 단체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고, 퇴근하면 줄줄이 포장마차로 달려가 배고픔과 정서적 허기를 달래려고 맛있게 먹었던 튀김을 지금도 너무 먹고 싶다는 이야기. 우리를 딸처럼 여기며 “한참 먹을 나이인데…” 하시며 한 바가지씩 누룽지를 챙겨 주셨던 고마운 식당 아주머니. 야근 시간, 휴식 시간, 녹음기를 틀어놓고 디스코 스텝을 밟았던 기억 등등이 아직도 가슴 한 칸에 아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교 교문 앞 벽에 새겨져 있던 문구를 우린 숙명처럼 받아들

이고 살았지요.

‘어떠한 시련과 곤궁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녀 이외에는 이 교문을 들어설 수 없다.’

그리고 당시 명절 숙제로 학생들이 고향에 있는 잔디를 삽과 괭이로 퍼 가져와 학교 운동장에 옮겨 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의 정성을 아는지 잔디가 서로 어우러져 잘 자라주었고 우린 이를 ‘팔도잔디’라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팔도잔디는 어린 소녀들이 지치고 힘들 때 고향이 그리울 때 잠시 쉴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 되어 주었지요.

졸업 반지 바뀌 끼며 서로 잊지 말자고 약속했던 소녀들.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힘으로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되어 성장한 한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우리 동문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마산 한일여고 동문님들~ 벚꽃 피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3월 30일 10시 30분에 우리 한일여자고등학교 모교 강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날 우리 동문의 힘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역사관을 만들어 개관합니다. 4만 7천 동문의 삶이 오롯이 담긴 역사관을 둘러보며 팔도잔디에 앉아 그 시절 추억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함께 하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위로는 늘 고프다

조만혜 | 경남 김해시 월산로

주말 동안 감기에 걸렸다.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이 아무개 내과는 잘 낮고 꼼꼼하게 진료를 보는데 대기 인원이 많고 통박 주는 말을 많이 한다. ‘체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양의학에는 그런 말은 없다며 증상을 말하라고 하는 식이다. 김 아무개 내과는 대기가 적어 진료는 빨리 볼 수 있는 반면 꼼꼼하게 봐주질 않는다.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 심한 통증은 아니다 싶어서 김 아무개 내과로 갔다. 9번째 환자였지만 금방 내 차례가 되었다. 역시 증상을 묻고 처방을 내리는 데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많이 아프시냐?’란 질문도 없이 주사도 없이 처방만 받아서 순식간에 나오며 ‘다음엔 여기는 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이럴 때마다 꼭 떠오르는 옛 추억이 있다. 예전에 김해 시내에 오래

된 병원이 있었다. 이무수 소아과이자 내과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정하고 친절하신 흰머리 할아버지였다.

어느 겨울 지독한 감기에 걸렸는데 아무 연구도 없는 지역에서 그때도 주말 내내 자취방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월요일을 맞았다.

그때는 내가 회사에 안 가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결근은 생각도 못 하던 새내기 직장인이라 빨간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쯤 걸리는 직장으로 출근했다. 열에 들뜬 얼굴로 출근한 모습을 보고 선배들이 열른 병원에 가라며 떠밀어 다시 빨간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다.

이무수 병원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대기실에 여럿 있었는데 간호사가 대기실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스프르 늙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체온을 재주었다. 간호사 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열이 39도가 넘는다고 먼저 진료실로 들여보내 주었다. 먼저 온 아기 엄마들도 안쓰럽게 쳐다볼 뿐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많이 아팠을텐데 왜 지금 왔어요. 이 정도 체온이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

의사 선생님 말씀에 나는 출근했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다.

“직장은 어느 쪽이에요?”

친절한 목소리에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주말부터 뭘 제대로 못 먹었겠네.”

“네, 혼자 살아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흘렀다. 이무수 할아버지는 가만히 등을 토닥토닥해 주시며 말씀하셨다.

“직장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내가 있어야 직장도 있는 거야. 다음에는 출근하지 말고 병원부터 와요.”

낮선 고장에서 홀로 견디던 아픔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감기가 곧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직장 생활이 힘들고 혼자 사는 생활이 너무 외로워서 감기가 더 지독했던 것이었다.

그 후엔 난 그 병원을 지나갈 때나 이무수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러 이사를 했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병원을 그만 두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난 오늘처럼 감기로 아픈 날이면 낮선 고장에서 홀로 아팠던 시절과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로 감기가 나았던 추억에 잠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몇 마디 말이 이렇게 30년이 지나도 록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니!

지금은 시절이 많이 변해 늘 SNS로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만큼이나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는 늘 고프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부터 나에게 다정해지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하러 나서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여성시대 가족들도 늘 건강하시길!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선배, 편안하십니까?

남영우 | 강원도 강릉시 회산로

부고 문자가 올랐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연락이거나 피싱 문자겠거니 하면서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보아 넘기다 '본인상'이라는 단어에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 꿈일 거야, 설마 이럴 리가! 입을 틀어막고 놀라서 지인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선배 맞냐고 재차 확인하고 난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마냥 울었다. 무슨 일이냐고 주변 동료들이 조심스레 물었고 난 그 길로 조퇴를 했다.

삶과 죽음이 한 곳 차이라 한다지만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숨 쉬고 이야기 나누던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얼룩져 운전을 겨우 했다. 이미 많은 조문객이 와 있었다. 선배는 평소 밝고 자상하고 따뜻했기에 우울한 기미는 눈치채지 못했다.

‘자식들도 있는데 남은 가족들은 어찌 살라고 세상을 등진 건지…!’ 얼마 전 함께 술 한잔할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듯 했던 선배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젊은 청년들은 각자 바쁘고 아이 아빠들은 또 집에 부랴부랴 가야 하고. 누구한테 마음 터놓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그에게 귀 기울여줄 사람은 정작 없었던 건지.

우린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정이 있게 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추억했다.

차비가 없을까 봐 회식 후에는 꼭 2만 원씩 손에 쥐여 주던 사람이었다. 아이들 자랑할 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고향과 어머니를 자주 그리워했다.

선배를 떠나보내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를 떠올리면 어김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마음을 내주는 만큼 돌아온다면 그는 덜 외로웠으리라.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커다란 강이 있어 넘어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는 없는 건가. 마음속으로 애타게 부르고 부르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내내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다. 가슴 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 일이다.

동시에 나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이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떠올릴 때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슬픔은 남은 자의 몫.

선배, 가신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부디 편안하시기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송선미 | 경기도 화성시

결혼 전 24살 때 언니가 하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원하셨고 언니에게는 월급을 적게 줄 종업원이 필요했습니다.

2년 후 결혼하고 수원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남의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열심히 모아서 6개월 만에 지하방 한 칸짜리 전세를 얻어서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둘째가 돌쯤 됐을 때 옆집 지하방 두 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서 2교대 일을 하던 남편 눈치 보면서 아이들과 부대끼다가 그나마 방 두 칸으로 이사를 하니 집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황달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햇빛 잘 드는 곳에 아이를 기저귀만 채워서 2~3시간 동안 해를 보게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하는 깊게

들어간 곳이다 보니 창문을 열어도 건물벽과 벽 사이 밖에 안 보였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쌓여도 밖에 나가야만 날씨를 알 수 있는 곳. 그 후로 어린 두 아들이 아프면 집이 습해서 그런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2년 후 남편 직장 근처 2층 15평 다세대 집 전세로 이사했고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우리의 첫 집인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오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넓은 거실에 모여서 함께 잠을 자곤 했어요. 방이 3개나 있는데도 애들이나 저희 부부나 좁은 방에 모여 자던 게 습관이 돼서 따르는 잠이 안 오더군요. 마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직장 따라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오산 집은 전세를 놓고 나왔는데 그게 그 집에서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큰아들이 희귀병으로 아프게 됐고 남편이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 병원비에 생활비에 정신없던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녀 때 배운 미용업으로 부랴부랴 헤어숍을 열었지요. 오랜만에 다시 하려니 어렵고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두 아들의 학비를 버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전업주부가 되어 열심히 도왔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집을 팔아야만 했어요. 우선은 두 아들 학비와 큰아들 병원, 생활비를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라도 건강하게 일을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단골도 생기고 큰아들도 점점 나아지고 남편도 2년 반 만에 몸을 추스르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나는 이제 10년만 더하고 가게 그만두자’ 생각했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아들들이 제힘으로 용돈을 벌 때쯤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마음먹었는데 신장이 고장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술받고 3개월 만에 다시 미용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안 해 본 것 없고 좋다는 것 다 먹어보고 실망도 했다가 다시 마음잡고 장사도 했다가 좌절과 희망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남편도 아들들도 각자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두 아들은 직장 따라 독립도 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1월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일 그만두고 나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가고 싶은 곳,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남편이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응원해 주어 고마웠습니다.

제가 장사를 접게 되면 가게 자리는 늘 자기에게 주라고 말하던 봉어빵 하는 친구에게 진짜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하더군요. 3월까지만 장사하고 잔금 받기로 계약 끝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며칠 쉬어보니 또 마음에 번민이 생기더군요.

30년 쉬는 날보다 일한 날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 쫓기던 시간. 뭐하며 쉬어야 하는지 잊었던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낸 저는 이제 4월부터 아침마다 갈 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멍합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저만의 도전을 시작해 봐야지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저의 인생 2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두 아들에게 “너희 쓰는 돈 조금씩 가져서 올해부터는 가



족들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지 말고 엄마한테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보내라. 엄마 일 그만두면 용돈 필요하다. 그동안은 엄마가 너희 도와서 자리 잡게 해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엄마를 도와줄 차례라 생각 해라” 얘기하는데 말만 들어도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30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희로애락을 뒤로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알차게 꾸밀 겁니다.

선미야! 너는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앞으로 출발~.
응원해 주세요.



떠날 결심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어린 날의 가회동 집 앞이 떠오른다. 그때 동네엔 구멍가게 하나만 있을 뿐이어서 엄마는 늘 낙원시장, 동대문 시장으로 찬거리를 사러 가셨다. 동네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치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새벽 두부 장사 종소리로 골목의 정적을 깨뜨린 후 새우젓, 동동 구리무, 솜사탕, 채소 장수와 굴뚝 청소부, 머리카락이나 채권을 파는 아저씨 등 많은 이들이 물건을 이고 지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 가끔 아줌마 행상이 지날 때와 밥때가 맞으면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권하던 시절이다. 아마도 같은 여자로서 행상의 고달픔을 배려했을 터이다.

어느 날 큰딸 희은이가 사라져 어두워질 때까지 소식이 없자 집은 발각 뒤집혀서 가회동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는데 나는 새우젓 장수대에 가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서 귀가했다. 그 아저씨 왈 “애가 나만 보면 ‘아저씨 나 좀 어디 좀 데려가세요’ 하도 노래를 하길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까지 먹여

서 왔네요.” 그게 미취학 아동 시절, 나의 아주 신나는 첫 번째 ‘여행’이었다.

71년 초가을부터 라디오 부스에 앉아 생방송을 하다 보니 (그때는 녹음이란 게 도무지 없고 애오라지 생방송! 일주일이면 일곱 날이 생방송이었다.) 어쩌다 여름이면 통기타 가수들과 함께 바닷가에 공개 방송하러 가서 저녁 때까지 녹음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아주 설레는 ‘여행’이 됐다. 자가용이 없는 나는 방송국 장비를 실은 버스를 얻어 타고 가는 게 신이 났는데 엔지니어 아저씨들과 얘기도 하며 남다른 기분을 냈다.

사람들이 나들이 다녀온 얘기가 드물던 시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는 내 고장 자랑이 전부였다. 방학 때면 남학생들의 무전여행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렸다. 매일매일 생방송이 일과가 된 날들, 등교한 후엔 잠을 못 이겨 이런 대학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휴학하고,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던 나의 20대. 엄마의 천문학적인 빚을 다 갚고 나서 나는 떠날 결심을 했다. 잠시 잠깐의 여행이 아닌, 긴 여행을 결심했다. 노래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다. 여권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 많은 노래가 금지곡으로 묶이고 가끔 수상한 2인 1조 아저씨들이 기독교 방송으로 찾아와 이렇게 저렇게 나를 떠보던 그 시절, 나는 어렵게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양코나 프로팀 소속인 세계적인 배구 선수 조혜정의 초청 덕에 그녀가 원하는 우리나라 책과 잡지, 음식 등을 이민 가방에 가득 싣고 떠났다. 1981년 초봄 조혜정 선수가 게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덕에 이탈리아의 많은 소도시 여행을 했다. 그 후 그녀는 결혼 준비를 마치고 귀국했고, 나는 미리 구매한 유레일패

스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도시 이름을 기억하며 유럽 여기저기를 혼자서 둘러보았다. 낮설지만 서양 배낭족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온갖 수다로 푸는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행선지를 정하곤 했다. 동양인이라고는 일본 여성 세 명을 만난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기차에서 맥을 만났고 우리는 긴 스페인 여정을 함께했다. 나보다 머리 하나만큼 큰 덩치지만 얼굴이 맑고 착해 보이는 씩씩한 여성이었다. 많은 이야기길 나누었고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단식하기’라고 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한한 일들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면서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세빌라, 아랑후에스, 마드리드, 톨레도를 누비면서 정도 많이 들었다. 맥은 인간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다. 내가 스승이 되는 관계, 내가 제자가 되는 관계, 서로 존경하며 제자인 동시에 스승이 되는 관계. 세 번째 유형이 우정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자명종 시계를 빌려 머리맡에 놓고 잤다. 아침 7시에 맥을 공항까지 내려다줘야 했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고 맥을 떠나 보내는데 흐느껴 우는 맥. 따뜻한 작별이었다. 혼자 돌아오는 길에 국립박물관을 발견하고 1시간 반 정도 슬슬 구경했다. 그때 문득 맥이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거리에 앉아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봐. 더 이상 박물관 구경은 하지 말라고.” 사학 전공 아니랄까 봐 걸핏하면 박물관을 좋아하는 내게 맥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내 나이 서른의 유럽 여행은 맥 한 사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후 맥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스페인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집을 떠나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너는 어디서건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행은 어려운 주제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이번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의 글제가 ‘여행’이다.

청취자 여러분께 참여하시라 말씀드리며 나도 이번 월간 여성시대 원고 주제를 ‘여행’으로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치 나도 <신춘 편지쇼>에 응모하듯 써보리라.

그리고 바로 고민에 빠졌다. 진짜 행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억에 남은 여행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이상은의 노래처럼 인생을 여행에 빗대어 쓸 것인지를 말이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배 속에 있던 나를 데리고 부모님 두 분이 다녀오신 태교 여행부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엔 수학여행, 대학교 땀 엠티, 긴 휴가 땀 해외여행, 간단하게 배낭여행, 결혼하며 신희여행, 애들 데리고 가족여행, 토요일이라고 주말여행, 다 갔다

고 부모님 두 분 모시고 다녀온 효도 여행까지. 이별 여행 말고는 참 많은 여행을 다녔다.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내 사십 중반 평생을 여행에 비유해도 할 말이 많다. 아직 어디로 떠날지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지나온 10대 시절과 하루하루가 여행 가기 전날처럼 설레고 떨렸던 20대. 낯선 곳을 여행하듯 새로운 경험들이 가득했던 30대를 거쳐 이제 40대를 여행 중이다.

이쯤 되니 확실한 건 인생이라는 여행은 왕복이 아닌 편도라는 것. 지금 보는 풍경들은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 그 여행의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도 '여행'이란 주제는 참 친숙하고 할 이야기가 많을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난 이 고민의 해결을 우리 당당이 여러분께 맡기고자 한다. 과연 여러분은 이번 <신춘 편지쇼>에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실 것인지! 이번에도 제대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참 그때 희은 누님도 방송에서 여행을 주제로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요 앞장에 어찌 쓰셨나 궁금하다.



IBK 기업은행

로망이라는 이름의 카드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오르죠

마치 K카드처럼

프리미엄한 당신이니까

기대 그 이상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프리미엄한 삶을 위한
IBK카드 K카드, 출시



K-22 (POINT) 카드
K-22 (MILEAGE) 카드

※연회비: 국내전용(BC) 21만9천원(가중회원 6만9천원), 해외겸용(MASTER) 22만원(가중회원 7만원) ※여신금융협회의필즈제2023-C2B-05553호(2023.05.26) 제20232312호(2023.05.11) 유효기간(2024.05.10) · 자세한 문의는 가맹점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은 상품·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 개편이 필요한 경우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6-2566, E-MAIL: IBKETHICS@IBK.CO.KR ※연차이자율: 회원별, 이용상 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이태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거래 연체시: 가맹점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무이자 할부 무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가맹점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무이자 할부 무리. 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 정의율과 상호 금융가계지급 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의 변화는 당신이 중심.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반가운 곳

은행은 그런 곳이어야 하니까

금융생활의 더 큰 만족을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최초 시니어·금융취약계층
(개인 수신/카드 수수료 0원)
이체·자동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 카드재발급수수료, ATP발급수수료 등